



희망을 봅니다 탄탄한 제도에서, 확고한 비전에서, 굳건한 의지에서...

새해 성남은 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합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듬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등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남을 차곡차곡 준비합니다. 어려움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이 또한 변화의 기회로 삼는 성남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신축년 성남시민 여러분께 다복과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FEBRUARY 02
Vol.307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 통권 제307호 2021년 1월 25일 발행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eongnamdiary) facebook.com/seongnamdiary
[블로그](https://www.instagram.com/seongnamdiary) seongnamdiary.com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eongnamsi) instagram.com/seongnamsi
[트위터](https://twitter.com/seongnamcity) twitter.com/seongnamcity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sndiary) youtube.com/user/sndiary

발행 성남시
 편집 공보관
 주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장)
 콜센터 @성남시콜센터 1577-3100
 홈페이지 snvision.seongnam.go.kr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성남시도 함께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자체예산 407억 원 규모의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통해 또 한 번의 경제 방역에 발빠르게 나선다고 1월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총 2,850억 원 규모의 보편·핀셋 지원을 결합한 '성남형 1·2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은 성남시민의 세 번째 경제 방역 정책이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겪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지원 등 10개 취약계층 지원사업, 성남사랑상품권 2천억 원 10% 특별할인판매 등 2개 일자리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임대료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총 15개 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과 예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총 10개 사업 201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도 피해를 입은 영업장 5,501곳에 100만 원씩, 1만7,669곳 집합제한 피해업소엔 50만 원씩 총 143억 3,6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20회 휴장한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545개 점포에도 점포당 100만 원씩 생활안전기금을 지원하고,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총 72곳엔 200만 원씩 운영비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672명엔 1인당 10만 원씩 3개월간 성남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전세버스 업체 10곳에 버스 1대당 100만 원씩, 16개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천 명과 22개 법인택시 1,500명 운수종사자에게 10만 원씩 3개월간을, 등록 예술인 1,608명에게도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등 55개 사업장에 460명 규모의 새희망 일자리사업을 마련하고, 성남사랑상품권 2천억 원 10% 특별할인판매도 이어가는 등 총 167억 원을 투입해 위드코로나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더불어 중앙지하상가, 모란민속5일장 등 전통시장 1,221개 점포의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하고, 성남시내버스(주) 등 10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사송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6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 심한장애인 1만3,850명에게 10만 원씩 장애인맞춤형 긴급지원(13억 8,500만 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2,600세대에 10만 원씩 긴급지원(2억6천만 원) ▲ 영업 및 유통업장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30% 감면(21억 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친다. 오는 2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후 각 사업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책기획과 기획팀 031-729-2234

성남사랑상품권 2천억 원 규모, 10% 특별할인 판매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상인 숨통



성남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올해 2천억 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할인을 10%면 1명당 월 최대 구매 한도인 50만 원어치를 45만 원에 살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성남시 소재 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등 119곳 지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인 차(Chak)를 설치하면 살 수 있다. 특별할인 판매분이 소진되면 할인율은 평소대로 6%로 환원된다.



성남시가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은 모바일(가맹점 1만6,323곳), 지류(가맹점 1만5,585곳), 체크카드(가맹점 2만5,274곳) 등 3개 종류다. 전통시장, 택시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상품권 사용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내에 모바일 결제 기능을 갖춘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비대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원격 결제 기능을 강화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인들의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으로 판단해 성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재추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031-729-2593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물류수 값 결제 중



힘내라! 청년,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취재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청년들이 배우고(Do learn), 도약할(Do run)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두런두런 취업'은 청년들에게 잘 맞는 지역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해 청년 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청년·기업 3자 간 고용유지 약정 체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참여자격	사업장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인건비 월 200만 원 이상 지급 가능 기업
청년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참여기간 동안 성남시 주민등록 유지, 타지역 거주자는 근로계약 후 1개월 이내 전입 조건)
지원내용	사업장 인건비 월 200만 원 기준 80%(최대 160만 원), 2년간 지원 ※ 4대보험, 휴일·아근수당, 퇴직금 기업 자체부담
청년	교통비(월 5만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카드 중복 제외), 자격증취득지원비(연 15만 원), 인센티브(사업장에서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청년에게 지급)
모집절차	1단계 모집공고 → 참여사업장 서류 및 현장심사 → 사업장 선정 → 사업장 적격심사
2단계	청년참여자 모집공고 → (사업장)참여자 선발 → (성남시)참여자 적격심사 → 3차(성남시·청년·사업장) 협약체결
모집시기	수시모집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참고)

성남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31-729-8763

Mini Interview

채다은(만25세, ㈜더페이스 근무) 2019년 4월 '청년 두런두런 취업' 참여



모든 취업정보를 탐색하던 대학 졸업 시기에 학교 취업정보센터에서 온 좋게 '청년 두런두런 취업'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신청했어요. 지금 하는 전사·홍보 일은 제가 최종 목표로 이루고 싶은 일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업무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회사에 급여 지원만 해줘도 감사인데, 교통비와 자격증취득비 지원에 2년 근무 시 인센티브 혜택까지 받게 되니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취업 후 청년정책과에서 주적으로 찾아와 설문조사를 하며 회사의 불이익 같은 건 없게 잘 살펴 주는 일이었어요. 한 번 취업 성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무 탈 없이 잘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아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졸업이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시기에는 수많은 낯선 일 중에서 내게 맞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의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두런두런 취업'을 빨리 알아보고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아, 우리 4차 가져!

참여 사업장 모집

4차산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역면.

모집기간 2021. 1. 25.(화) ~ 2. 10.(수)

모집대상 성남시 관내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15개소

참여자격 4차산업 관련 업종의 사업장이, 경영관리, 정보보호, 드론 3D프린터, 신재생에너지 등 또는 디지털·비대면 직무 제공이 가능한 사업장(온라인랜선스 제작, IT기술 활용 등)

지원내용 참여 청년의 인건비 90% 지원(2021. 3월 ~ 12월, 10개월간)
- 청년 인건비 월 최저 200만원 지급 조건, 보조금 월 최대 180만원 지원
※ 기업 자체부담: 인건비 10%, 연차수당, 기타제수당 및 기업부담 4대보험금

문의사항 성남시청 청년정책과(031-729-8764)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성서방 → 고시·공고 → 알면공고)

★ 성남시



[청년부터 노년까지 인구정책 안내 프로젝트] 내게 맞는 정책찾기 청년 ② 주거 지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인구정책' 이모저모,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알아보고 스스로 권리를 챙길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주거지원	
청년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업
청년 임대형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취가능을 강화한 청년 임대형 청약통장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택도시보증기금의 개인신용 보증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로 청년들에게 저리로 월세 보증 및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보증기금의 개인신용 보증 청년 전용 보증부 전세대출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세 보증 및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주택도시보증기금의 개인신용 보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 전세금 안상대출보증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대출금 상환을 책임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 031-729-4753

※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http://www.gov.kr>) 또는 대통령직속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http://www.betterfuture.go.kr>)를 참조하세요.

2021년 '청년 니트(NEET)없는' 일자리 경험사업 참여자 모집

청년 미취업자에게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역량강화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경험사업이다. 성남시는 2021년 '청년 니트없는' 일자리 경험사업에 참여할 청년 70명을 모집한다.

- 모집인원 청년 70명 ※ 만 34세 이하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근무기간 2021년 2~12월(6~10개월간)
- 근무부서 성남시·출연기관·민간·위탁기관 등 23개 부서(24개 사업)
- 근무시간 1일 4~8시간, 주5일 근무(※ 부서별 근무시간 확인)
- 임금단가 시간당 10,500원(2021년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주휴·연차유급휴가, 부대경비
- 채용방법 부서별 자체채용(서류전형+면접전형)
- 모집 및 최종 합격자 선정 2021년 1~2월 중
- 주관부서 성남시 청년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입찰/채용/입법예고 → 채용공고] 2021. 1. 22 공고



성남시 노인·한부모 2,522가구에 생계급여 신규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연락 끊긴 가족 있어도 지원받는다”

성남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 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8,349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등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이 계속 적용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4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74명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데도 연락이 끊긴 부양 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최 저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발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 “올해 생계급여를 포함한 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 예산은 총 1,146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31-729-2892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 ①, ②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다. ① 가구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급여별 선정기준 (2021년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1,988,581원
	의료급여	731,132원	1,235,232원	1,593,580원	1,960,516원	2,302,949원	2,651,441원
	주거급여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982,871원
	교육급여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687원	3,314,302원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지속 적용						
수급자격에 따라 총 7종 지원	생계급여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장제 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상담 및 접수)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장애 정도 심한 1만3,167명으로 확대

올해부터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제 15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167명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의 시각·신장·뇌병변·지체 등 4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839명 외에 청각·언어·심장·지적·정신·자폐성·호흡기·간·안면·장루(우루)·뇌전증 등 11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328명이 추가로 택시바우처 혜택을 보게 됐다. 성남시 콜센터(푸른콜 031-755-4000, 브랜들콜 031-721-7000)나 앱 '성남 YES콜'을 통해 성남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 요금을 내면 35%만 결제된다. 나머지 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신청 후 발급받으면 택시바우처를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카드(신용·직불)가 발급되지 않는 13세 이하의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2

Mini Interview

윤도순(76·야탑동)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지회 부지회장



택시요금 65%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요금의 35%만 내면 되니 택시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한결 줄었어요. 신청방법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니 간편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힘들고 많은 불편도 따르는데, 이제 택시를 큰 부담 없이 이용해서 정말 좋습니다. 이제는 택시바우처로 일반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니 택시도 빨리 탈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회원들도 바우처 덕분에 택시요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벼워져서 정말 기뻐합니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곳에 갈 때도 택시를 타고 안심하고 갈 수 있으니까요. 올해부터 택시바우처 대상도 확대됐으니 더욱 반갑습니다.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성남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다. 단, 각 구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영양플러스사업 중인 중위소득 80% 이하 임신부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9만6천 원을 부담하면 1년 동안 최대 48만 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받는다.

2차 신청은 2월 1일~12월 15일 선착순으로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소포물(www.ecoemail.com)을 통해 자격 확인 서비스 검증을 받으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승인문자가 오면 ▲ 선택형-필요한 물품을 직접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 완성형-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 ▲ 정기배송형-3~12개월치 신청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사업량(3,500명 분)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역경제과 농정유통팀 031-729-2603

Mini Interview

성나리(32·양지동) 5개월 아기 엄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소식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라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소개해 준 지인에게도 고맙고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출산휴가를 받은 상태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정도 있는데 기계부담도 줄어줄 수 있는 기회라 놓치면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임신부뿐만 아니라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들까지 챙겨준다니 남편도 좋은 복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3가지 방법 중 정기배송형을 선택했어요. 아이가 어려서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일이었는데 친환경 상품을 정기적으로 배송까지 해 주니 행복합니다. 출산과 연관된 복지가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취재 김미진 기자 qeen03@hanmail.net



경기도 '최다' 규모 노인 일자리 사업 펼친다 2월 8~18일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4천 명 모집



성남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262억 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 참여 인원을 경기도 최다 규모인 9,478 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말 모집이 끝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공익형(4,084명), 시장형(57명), 사회 서비스형(423명), 취업 알선형(400명) 등 4개 분야에서 5,478명이 활동 중이다. 오는 2월 8~18일 4천 명을 모집하는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은 전액 시비(63억 원)가 투입돼 3월 2일부터 연말 까지 시행된다. 환경감시단 등으로 월 12시간 활동하면 12만6천 원의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다. 지역 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우선 선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성남시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수정·중원·분당 3개 구 노인회 지회, 노인복지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31-729-2905

Mini Interview

김은기(80) 어르신 노노케어(홀몸노인 말벗) 활동 중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본다'는 합성어로 홀몸노인, 취약계층 어르신들 위해 말벗도 해드리고 복지 정보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지인의 권원으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4년간 활동했으며, 올해도 신청하고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케어를 하면서 정 들었던 이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져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방문할 때마다 점차 얼굴이 밝아지고 제가 올 날만 기다리는 이들을 보면서 보람도 큼니다. 열악한 상황의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큼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힘드니 일하지 말라며 만류도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용돈도 벌고 심심한 생활에 활력도 생겨 좋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춥다고 장갑과 목도리까지 챙겨 주며 도움을 주는 복지관 관계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취재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성남시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40곳으로 확대

성남시는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1월 18일부터 40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상호대차는 자신이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가까운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거나 반납할 수 있는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다.

상호대차 서비스가 이뤄지는 곳은 이번에 새로 참여한 한마음점자도서관을 포함한 19곳의 공립착용도서관, 5곳의 사립착용도서관, 15곳의 모든 공공도서관, 학술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는 도서관 간 도서 배송용 차량을 1대에서 4대로 늘리고, 도서 자료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상호대차로 빌릴 수 있는 도서 권수는 1인당 6권이다.

신청한 도서가 도착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메시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요청한 도서를 대출해야 하며, 기간 내 빌려 가지 않으면 원래 있던 도서관에 도로 갖다 놓는다.

도서 대출 후반납 기간은 14일이다.

성남시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지난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10만1,779명이고 이들이 빌려 간 책은 14만9,134권"이라며 "집 앞 도서관 외 다른 도서관 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도서 선택 폭을 넓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인 현재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책 대출과 반납은 할 수 있지만, 자료실과 열람실 좌석은 30% 이하만 개방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 자료정보팀 031-729-4634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40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는 4억 원이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회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만 원이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1월 1일부터 연중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중모집,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eongnam.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400가구
 1)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2)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3) 금융권에서 2억5천만원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전세자금대출 중도의 '금차', '잔액, 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지원 대상자여부 확인)에 해당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대상은 아니다. (단, 신청일 당 시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대상 (공시가격 상한선까지 주택임대료 한도)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 국민, 영구,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주택도시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 다주택, 신용부부 전담 대출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대상자

지원내용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신청일 기준)

문의처 | 성남시 http://seongnam.go.kr | 전화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성남시, 소상공인 294억 원 특례보증에 대출이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속 자금난 해소하고 이자 부담 줄여



중앙공설시장 중남상회

성남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29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올해 분기별로 3억~4억 원씩 총 13억 원을 출연한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 원과 2020년도에 이

월된 보증공급 잔액 164억 원을 합친 경영자금(294억 원)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용자금은 5천만 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에 소재한 주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8억300만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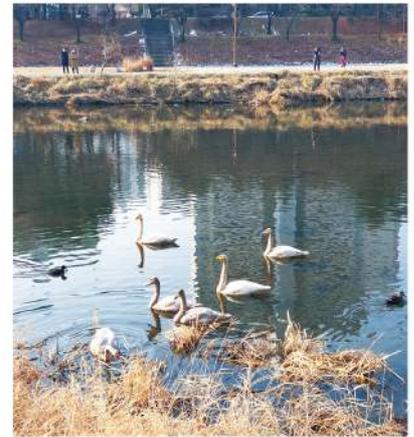
시는 지난해 577명 소상공인에게 135억 원의 특례보증과 4억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031-729-2592

생태도시 성남

탄천에 찾아온 귀한 겨울 손님, 큰고니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탄천에 귀한 겨울 손님이 왔다. 우아한 자태의 6마리 큰고니 가족이다.

성남 탄천에 고니가 관찰됐다는 기록이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성남 탄천에서 큰고니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에 탄천에 온 큰고니들은 겨울 한파로 경기도 인근의 저수지나 호수가 얼어 먹이활동이 어려워져 이동하던 중 탄천까지 오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지정된 큰고니는 가리기목 오리과에 속하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분류된 희귀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새끼'의 주인공이 바로 큰고니 새끼인데 어린 새끼들은 깃털이 희색을 띠다가 여러 번의 탈바꿈을 통해 점차 흰색으로 바뀐다. 큰고니는 한번 깃털을 깎으면 평생을 함께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해 태어난 새끼는 이듬해 독립할 때까지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고니의 가족에는 남다른 애착이 있다. 큰고니는 대개 밤에 휴식을 취하고 낮에는 먹이활동을 하는데 잠자리로 갈 때나 먹이활동을 시작할 때는 꼭 가족이 모여 단체활동을 한다. 큰고니는 물속 식물의 줄기나 뿌리를 즐겨 먹고 달팽이나 작은 물고기도 먹는다.

산책 나왔다가 큰고니를 보고 잠시 멈춰선 한 시민은 "탄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고니를 6마리나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며 반가워했다. 이번에 큰고니가 발견된 곳은 탄천구간 중 미금보가 철거된 부근이다. 미금보가 철거된 후 2019년초부터 미금보 하류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흰목물떼새가 매일 관찰되는데 큰고니 가족도 미금보가 있던 위치에서 1km 하류에서 관찰됐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은 "성남시 탄천구간에서 큰고니가 발견된 것은 환경단체와 성남시가 합심해 탄천수질개선에 노력하면서 자연성이 회복됐고, 그럼으로써 점차 생물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증거다"라고 설명했다.

큰고니들은 2월 말이면 고향인 러시아의 북동부 호수와 내몽골자치구의 북서부 습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큰고니들이 탄천에서 오래 머물다가 고향으로 잘 돌아가고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 탄천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성남시·특허청, 창업기업 지식재산 제품혁신 지원사업 편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IP 상품화 통합지원... 13개 기업 모집

성남시는 특허청과 협업해 지역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제품혁신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제품 제작, 기술 보호, 투자유치를 도와 사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우수 지식재산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13개 사업이며, 사업비 8억 원(특허청 5억 원, 성남시 3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와 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원의 실무진이 매칭된다.

이중 분야 특허 검색 기업을 적용해 신제품 기획이나 제품 고도화 작업 때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찾아낸다. 그 해결책도 찾아내 지식재산 제품의 혁신을 지원한다. 개선된 제품 디자인 평가를 위한 실물 크기의 모형 제작(목업)과 시제품, 개발품, 개선품의 지식재산권 등록도 지원받는다.

시는 올해 11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사업화를 돕는다. 지원받으려는 창업 7년 미만의 성남시 소재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중소기업은 2월 15일까지 모집 기간에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재산 활용계획서,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의 특허청은 지난해 7월 2일 '성남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11개 기업에 1억5천만 원 상당 지원 규모의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과 18개 사 스타트업 대상 3억7천만 원 규모 '지식재산 니레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ICT융합팀 031-729-8994



01



02

01 중앙공설시장 밖에서 바라본 전경 02 1층 상가들의 점포명이 한눈에 들어온다 03 입구의 열감지기와 손소독제 04 30년째 운영 중이며 1층 중간에 자리잡은 <자매전집> 05 신인섭 중앙공설시장 상인회장(충남상회 운영)



03



04



05

새롭게 서는 중앙공설시장

3년간 재건축 후 올해부터 현대식 시장으로 정식 운영

취재 김미진 기자 qeen03@hanmail.net



3년의 재건축을 거쳐 현대식 시장으로 거듭난 중앙공설시장이 설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공설시장은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2월 1일 온라인(유튜브 '성남TV') 개장식을 연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상 1·2층에는 다양한 점포가 자리하고 3층은 상인회 사무실과 상인휴게실이, 4층부터 옥상까지는 각 층마다 전기차 충전소와 450여 대 주차면이 완비돼 있다.

1층 입구에 들어서면 발열체크기가 설치돼 있고, 상가 간 낮은 담으로 확 트인 시야는 상가별로 통일성 있게 정리된 배치와 함께 깔끔함과 상쾌한 기분까지 느끼게 해 준다.

1층에는 5명 이상 직원이 있는 정육점과 30년 전통의 전집, 율계와 시누이가 함께 운영하는 수제떡갈비집, 신선한 야채의 충남상회, 원산지 표시가 눈에 띄는 순회네정미소, 다양한 수산물의 우리수산 등이 선보이고 있다. 2층에는 다양한

먹을거리도 준비하고 커피와 썬터도 있다.

30년째 전집을 운영하는 '자매전집'(1층 중앙)의 박경화 사장은 "3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상인들의 꾸준한 교육으로 상인회가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일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고 그만큼 모두 각오가 큰 편"이라며 새로운 다짐을 내비쳤다.

신인섭 중앙공설시장 상인회장은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을 오겠다는 문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미루는 중입니다. 앞으로 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성남의 공설시장으로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상인들 모두가 가슴에 이름을 달고 자신만의 손맛과 정성, 믿음을 내세우는 중앙공설시장이 전통시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공설시장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09(태평동)

성남시민순찰대 39개 동으로 확대

지역 안전망 강화... 대원 204명 모집해 3월부터 운영

성남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성남시민순찰대를 3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해 20개 동에 배치 운영하던 성남시민순찰대 활동 지역을 늘렸다. 시는 성남시민순찰대 운영에 올해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4명 대원(기간제 근로자)을 모집한다.

선발되면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존), 공원(파크존) 등 많은 구역에서 하루 2~4시간 순찰 활동을 한다.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

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를 지원하고, 중앙동, 금광 12동 등 재개발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에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킨다.

홀로 사는 어르신 맥 등은 전동 교체, 못 박기 등과 같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 구호, 가출 청소년 보호, 비행 청소년 계도, 치매 노인이나 술 취한 사람 안심 귀가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지난해 3~11월 20개 동에 배치된 성남시민순찰대(195명)는 코로나19 방역 활동, 마스크 착용 캠페인과 계도, 방역수칙 안내,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등 모두 1만9,775건의 활동을 했다. 이들 성남시민순찰대가 활동한 20개 동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5%가 이전보다 안전해졌다고 답했고, 74.9%가 성남시민순찰대 확대 운영을 찬성했다.

재난안전관 안전협력팀 031-729-4202



성남시 성평등 문화 조성사업 공모

2월 5일까지 모집... 최대 1천만 원 지원



01 성남여성회 '엄마들의 젠더스쿨 성평등 그림책 놀이' 감사 양성 02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양성평등을 말하는 청년인형극 티카타카'

성남시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비영리단체·법인, 대학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문화 조성사업'을 공모한다.

선정되면 4~12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천만 원 지원받는다.

총 지원 규모는 1억 원이다. 공모는 자유, 지정 등 2가지로 구분해 5개 사업 분야를 지원한다.

자유 공모는 양성평등 확산,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

제활동 촉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 기타 성평등 정책 등 4개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 조성사업을 찾는다.

지정 공모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사회적 돌봄 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고용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담은 사업 등이 해당한다.

공모 참여 자격은 공고일(1. 18) 기준 1년 이상 성평등 관련 사업 실적이 있으면서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과 공익단체, 여성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등이다.

성남지역 기관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친목 또는 영리 목적 사업,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등은 공모할 수 없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지원 신청서, 성평등 문화 조성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기한 내 성남시청 6층 여성가족과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성남시 양성평등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독창성, 수행 능력 등을 심의해 오는 4월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지난해에는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양성평등을 말하는 청년인형극 티카타카', 성남여성회의 '엄마들의 젠더스쿨 성평등 그림책 놀이 감사 양성' 등 12개 사업이 선정돼 지원받았다.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1-729-2923



02



청소년자립의 마중물, 청소년자립성장학교 '와와'로 와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청소년자립성장학교 '와와' 개관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hanmail.net



01 카페 전경. 벽면의 목공예 도구함과 용구들이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 02 목공예 제품들



'와와'는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가 지난해 12월 15일 개관한 청소년자립성장학교다.

청소년자립성장학교는 자원이 많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목공카페로 운영 중이다. 목공과 바리스타 수업, 가죽공예 교육 등으로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과 도전을 위한 첫걸음을 돕고 있다.

"퇴소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자주 와요. 성인도 취업이 어려운데, 가정 밖 청소년들은 더 힘듭니다. 자립의 핵심은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단계적 일자리에서 훈련시키고 사회성도 단련하면 사회에 나가서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립성장학교를 세웠습니다."

쉼터 조진희 실장과 남유나 팀장의 설명이다.

쉼터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공간에 대한 염원은 성남시와 여성가족부 후원 '청소년복지시설 문화체험 공간조성사업', '나눔과 공감성그룹 후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사업 선정으로 현실이 됐다.

2월부터는 바리스타, 목공예, 가죽공예 수업이 진행된다. 교

육 시간은 학생들이 배우는 진도에 맞춰 탄력적으로 가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카페 운영이 어렵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반값 할인도 되고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목공예 제품들도 인기가 많다. 트레이, 도마, 휴지케이스는 카페의 시그니처 제품이다. 카페에 왔던 고객들뿐 아니라 일부러 목공예 작품을 구입하러 오거나, 주문 제작 문의도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의 사기도 높아졌다.

"기계 다루는 법, 샌딩, 제작, 디자인 등 만드는 과정을 모두 배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몰라요.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은 직접 만든 청소년에게 입금해 줍니다. 스스로 노력해 직접 돈을 버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뿌듯해하죠."

조진희 실장과 남유나 팀장의 말에 카페에서 일하는 청소년들도 "내가 만든 음료를 손님이 맛있게 드시니 너무 좋아요", "제가 직접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기뻐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직업체험 활동을 익히고 배워서 만든 제품 판매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교육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일자리로 연

결되는 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와와'다.

지금은 카페에 2명이 근무하지만, 상반기에 8명이 더 합류한다는 구상이다. 방역 교육 실시 후 제과·제빵, 가죽공예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해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할 계획이다.

"와와는 '와아~!' 하고 응원하는 의미, 또 자립성장학교로 '와', 이렇게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립 후 집 계약서 쓸 때도 '선생님, 같이 가실 수 있어요?'라고 연락합니다. 이력서도 같이 쓰고요. 겨울에 보일러 작동이 안 된다고 연락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쉼터 선생님들이 바로 찾아갑니다. 쉼터는 아이들의 기댈 언덕이니까요. 사람은 내 주위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 정서적 지지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동이며 마음의 울타리인 와와. 청소년자립의 마중물 와와를 큰 함성으로 응원한다.

"와와로 모두 와~!"

INFORMATION
 청소년자립성장학교 와와 031-755-1117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3(성남동)



뇌출혈, 척추질환... 성남시민의 응급상황을 책임지는 성남시의료원 신경외과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성남시의료원 신경외과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거나 낙상으로 척추를 다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다. 신속·정확한 진단과 임상 경험이 풍부한 성남시의료원 신경외과 의료진들 덕분에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건진 시민들이 다수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신경외과는 뇌, 척추, 척수, 말초신경 등 신경 계통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외상을 진단하고, 주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분야다. 진료영역은 뇌출혈·뇌졸중, 뇌

종양, 목·허리 디스크 질환,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 신경계 외상(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및 척추 골절), 말초신경 질환(손목터널증후군, 통증이다. 주요 검사로는 두개골 및 척추 X-ray, 뇌·뇌혈관 CT, MRI 및 척추 CT, MRI,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EMG-NCV) 등이 있다. 성남시의료원 신경외과는 박관용 과장과 한도영·김명중 3명의 전문의가 진료 중이다. 최근 치료받은 환자 사례 중심으로 엮어본다.



박관용 과장은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조교수,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로 활약했다.

박 과장이 지나가자 "성남시의료원과 박관용 과장님 만나고 싶어서 죽었을 텐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하는 환자가 있다. 반혼수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00(82·야탑동) 씨다. 그녀는 광산에서 오래 일한 진폐환자였다.

12월 28일, 앞이 잘 안 보여 안과를 방문하려던 중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분당소방서 119구조대가 화장실 문을 부수고 상대원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응급처치 후 성남시의료원 응급센터로 이송했다. 영상 판독 결과 우측 후두엽에서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었고, 곧바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이다. 어머니를 돌보던 딸 강00 씨는 "아무 후유증 없이 회복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했다. 119구급대원들과 성남시의료원의 신속한 영상검사, 박관용 과장의 치료가 콜라보레이션을 이뤄낸 생명을 구했다.

낙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환자들도 흔하다. 성남의 모 학교 급식실에 일하면서 골다공증이 심했던 00 씨는 새벽 식사준비를 하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척추 압박골절이 됐다. 구급차에 실려온 00 씨는 척추 성형술로 척추 골절을 치료하고 호전돼 퇴원했다. 요즘도 골다공증 주사를 맞기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한다.

살면서 우리는 의도치 않은 응급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119구급대원들과 성남시의료원 의료진들이 더욱 감사하다.



김명중 전문의는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전임의,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외래교수를 거쳐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 중이며 대한신경외과학회 지도 전문의를 수료했다.

환자(60·남)는 한 달 전 낙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었고 내원 3일 전부터는 두통이 더 악화되고 오심·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뇌컴퓨터단층촬영(Brain CT) 검사상 좌측으로 다량의 만성경막하출혈 및 우측에 소량의 급성경막하출혈이 보였고 출혈이 더 늘어날 경우 뇌압상승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태였다. 환자가 지속적인 뇌압상승 소견을 보이며 증상이 악화돼 수술을 미룰 수 없었다.

진단 직후 응급수술을 준비했고 빠른 시간 내 두개골전공 및 혈중배액술을 시행했다. 증상은 우측에 있는 만성경막하출혈로 발생했으며 수술 과정 중 좌측의 급성출혈이 증가될까 염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혈종이 잘 배액됐고 출혈이 안정화되면서 증상은 모두 호전돼 퇴원했다.

한도영 전문의는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전공의, 센트럴병원 신경외과장, 청주의료원 1신경외과장을 거쳐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 중이다.

환자(46·남)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뒷목 통증과 왼쪽 어깨로 방사되는 통증으로 내원했다.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의심돼 경추자기공명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을 찍고 난 뒤 환자는 더 많은 통증을 호소했고 왼쪽 팔꿈치의 힘이 빠져 손을 들기 힘들었다. 경추자기공명영상에서는 경추 5·6번에 왼쪽으로 탈출된 추간판이 관찰



됐으며 경추 신경 뿌리를 압박하고 있었다.

보통 통증만 있고 운동장애가 없는 경우, 비수술적 치료나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급성으로 발생하는 운동장애의 경우 수술적 처치로 압박받는 신경을 풀어주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운동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전방경추경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했고 경추 신경 뿌리의 압박을 풀어줬다. 수술 후 뒷목 및 왼쪽 어깨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운동마비가 왔던 왼쪽 팔꿈치도 호전돼 퇴원 시, 왼쪽 팔을 흔들어 보여며 인사했다.





『마음을 열다 마을을 잇다』

‘2020 성남마을공동체만들기네트워크 이야기’ 250면에 담아내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성남시 90곳의 마을공동체가 대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신 마을활동가들은 온라인 활용 능력이 충분히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프로그램을 소화해 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마을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길을 묵묵히 걸었다. 마을 활동은 단거리 달리기보다 장거리를 충분히 살피면서 가야 하는 장거리 걷기이기 때문이다.

마을이야기가 담긴 『마음을 열다 마을을 잇다』는 “본 책자에 담긴 마을공동체 이야기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활동가가 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성남의 자랑스러운 마을 활동가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출발했다.

성남마을공동체만들기네트워크(이하 성남마을넷, 위원장 양재연)는 2018년 1월 23일 37개 마을공동체 50여 명이 참여, 성남시청 울동관에서 발족 행사를 열고, 마



성남마을공동체만들기네트워크 매월 셋째 월요일 운영위원회의

을공동체 간 서로 힘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출범했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90개(중원구 15개·수정구 38개·분당구 37개) 마을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7개 협력지원 기관이 연대해 마을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회원들은 성남마을넷을 사랑방, 허브, 언덕, 시골 큰집, 장감다리, 선생님, 큰 울타리, 커뮤니티, 지역 사회 플랫폼 등으로 표현한다. 지난해 여름 코로나19로 지쳐있던 3개구 보건소를 찾아 시원한 커피와 음료, 팔방수, 사탕, 떡 등으로 감사의 응원을 보내며 함께했던 시간들은 성남마을넷 회원들의 지역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섬김 ‘덕분에’ 가능했다. 초대 권정미 위원장의 뒤를 이은 2대 양재연 위원장은 “마을살이는 서로를 돌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2020년 꿈꿨던 성남마을넷 임파워먼트는 마을공동체의 성장 더하기 마을 연대를 통한 사회적 자존감 회복이었다. 다만,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는 만남에 대한 갈망이 컸고 눈 맞추며 나누는 대화가 아쉬웠다”며 2월로 연가한 총회와 2021년을 준비하고 있다.

성남마을넷은 교류협력, 민관협치, 교육정책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 마을공간 나눔, 온택트 활용 활성화로 마을공동체를 지원, 마을 공리를 담당하는 교류협력 분과 ▲ 마을 자치와 자치분권 이야기를 나누는 민관협치 분과 ▲ 이 모든 공동체의 활동을 모아 교육정책 분과에서 『마음을 열다 마을을 잇다』라는 공동체 이야기를 엮어냈다.

앞으로 새롭게 활동하는 마을공동체들이 성남마을넷 이야기를 읽으며 사례를 중심으로 새롭게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리라 기대하며, 지난해 11월 문을 연 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아낌없는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긴급복지사업, 한시적 기준완화

- **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한 위기가구
- **기간**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재산기준: 11,800만 원 → 20,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추가지원 700만 원 이하)
→ 가구원수별 274만~1,231만 원 공제비율 확대
(1인 가구 774만 원, 4인 가구 1,231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종류	지원 내용	지원기준액(원)						지원기간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3월(3월)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회(1회)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 비용 (월 단위 지원)	290,300		422,900		557,400		3월(9월)
복지시설 이용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입소 및 이용료 지원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3월(3월)
교육비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분기 지원)	초 221,600원 / 중 352,700원 / 고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 고지금액)						1회(1회)
기타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연체된 전기요금	연료비 98,000원 / 해산비 7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연료비(3개월, 3개월 연장) 그 외 1회

- **신청기관 및 문의사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무한돌봄), 한시적 기준 완화

- **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 **기간**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389,715

- 재산기준: 25,700만 원 → 33,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1천만 원 → 4인 가구 기준 1,731만 원
- **위기사유**
- 기초수급 탈락 또는 중지자, 상반기 긴급지원자 중 계속 지원 필요 가구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19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지원내용

종류	지원 내용	지원기준액(원)						지원기간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000	3월(3월)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1회 500만 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항암치료비: 100만 원 이내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간병비: 최대 3,000천 원(연1회)						1회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 비용 (월 단위 지원)	387,200		643,200		848,600		3월(9월)
교육비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분기)	초 221,600원 / 중 352,700원 / 고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 고지금액)						1회(1회)
사재관 리지원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물품 지원	연회 최대 1,000천 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단, 단순 통원 진료비와 교통지원비 등은 제외						1회
기타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 보초비, 구직활동비	연료비: 월 98,000원(동절기 10~3월 중 주급여를 받는 기간) 냉방비: 월 31,000원(여름 7~8월 중 주급여를 받는 기간) 해산비: 1,000,000원, 장제 보초비: 1,000,000원(주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해산·사망한 경우만 지원) 구직활동비: 실직사업실세(후채금) 가구원 및 취업생가족 출당 후 1년 이내 100,000원						1회

- **신청기관 및 문의사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NEWS 01

광역버스 4500번 노선 신설

경기도 광역버스 4500번이 신설돼 사송동 공영차고지에서 수원터미널(모란역 경유)까지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의 유사노선 4000번과 더불어 모란역 연계 및 판교-수원 간 직결노선이 확충돼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진됐다.

○ 운행일시 2021년 1월 11일(월) 첫차부터

○ 주요경유지

사송동 ↔ 모란역 ↔ 아탑역 ↔ 판교테크노밸리 ↔ 성내터미널 ↔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서울고속도로 ↔ 아주대학교 ↔ 수원시청역 ↔ 수원터미널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031-729-8567

NEWS 02

성남시, 추진·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상 2030-1 단계 재개발사업인 추진구역, 신흥1구역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수진구역 및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에서 주거, 문화, 생활형SOC 등이 복합된 새로운 성남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新주거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원도심에 부족한 교육, 문화, 경제,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설치해 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고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공시설은 서로 복합화해 도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추진·신흥1 구역은 이전의 단대, 중3, 신흥2, 중1, 금광1 재개발사업과 같이 순환정비방식을 도입,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량 이주로 인한 주택 공급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협약을 맺었으며 내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성남시 원도심 정비사업은 현재 5개 재개발사업이 완료 및 공사 중에 있으며 3개 재개발사업은 철차 이행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이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정비과 재개발팀 031-729-4422

NEWS 03

중고생·학교밖 청소년 70명에 학습도우미 지원

성남시는 취약계층 중·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70명에게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대학생 학습도우미를 지원한다.

1대1 매칭 수업이 이뤄지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1.15) 현재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의 중1~고3 자녀다. 같은 나이(14~19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이며, 올해 처음 포함됐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대학생 도우미에게 하루 2시간, 월 최대 16시간을 배울 수 있다. 학습도우미 자격은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직계 존속이 성남시

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다. 시는 학습도우미에게 월 32만~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2억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학습도우미 지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대학생은 2월 1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자기소개서,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해당 서류를 내면 된다.

시는 중·고교생·학교밖 청소년을 먼저 선정한 뒤 성별과 학습 희망 과목 등에 맞춰 대학생 학습도우미 70명을 선발한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31-729-3444

우리 동네 제설함, 성남시 생활지리포털(<https://map.seongnam.go.kr>)서 확인!

테마맵 → 환경/안전 → '제설함' 아이콘 클릭 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요
눈이 올 땐 서로를 배려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

알아두면 좋아요

2021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대상 일상생활에서 민·형사 및 가사 등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 기간 2021년 1~12월 매주 월요일 10:00~12:00
- 장소 성남시청 내 회의실
- 방법 법률상담관(변호사)과 1:1 대면 상담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비대면(전화) 상담으로 전환 운영
- 신청 방법 사전 예약 접수

법무과 승무팀 031-729-227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대상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 이용요금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으로 본인부담액 시간당 1,506원~10,040원 (야간·휴일 추가 부담)
- 시간제 돌봄 생후 37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의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등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 질병감염아동 돌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또는 초등학교 대상 - 수족구병, 독감, 눈병, 구내염 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됐을 때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 및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가입 필수
- 정부지원 가구(가나 다형):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미지원 가구(라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2-9327

설 연휴기간 하늘누리 추모원 폐쇄

- 기간 2021. 2. 11 ~ 2. 14(4일간)
- 대책 연휴기간 전후기간(2. 4 ~ 2. 10 / 2. 15 ~ 2. 21) 추모원 24시간 연장 운영
온라인 성묘시스템 이용 유도(하늘장사정보시스템)

명절기간 하늘누리 추모원 방문 사전 예약 및 제례설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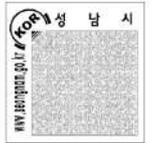
- 기간 2021. 1. 29 ~ 2. 26(설 연휴기간 제외한 25일)
- 방문제한 1일 최대 2,260명 (제1추모원 860명, 2추모원 1,400명)
- 예약접수 2021. 1. 20 ~ 2. 25
- 예약방법 성남시 홈페이지 개별 접수 (부득이한 경우 유선 접수)
- 성남시 홈페이지 배너클릭>추모원 사전예약 신청페이지 연결
- 성남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영생관리>추모원>추모원 사전예약 신청

설날 당일 화장장 축소 운영

- 일시 2021. 2. 12(금) 07:00~15:00에서 07:00~08:30으로 운영시간 단축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031-754-2268





감성을 깨우고 영감을 얻는 북포레

책과 예술을 만나 꿈꾸는 공간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01 아트 북과 작품, 그림책을 만나는 북포레 02 제랄딘 알리부의 『눈을 감으면』 포스터 03 북포레 외관 04 책과 예술을 만나 꿈꾸는 공간, 북포레

분당구 서현동 사범단지 카스스포름 상가 입구에 자리잡은 북포레(대표 김효린), 파란색의 BOOK과 녹색의 FORÉT, 분홍표지의 킷불이 사람들이 오가는 길을 밝힌다.

문을 열자 연두와 빨강이 마주 보는 작은 세상이 펼쳐진다. 제랄딘 알리부의 『눈을 감으면』 포스터는 눈을 감고 바라본 나만의 세상. 현실에서는 용기 내지 못했던 손을 내밀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기도를 올린다. 그 기도를 바라보며 자신만의 용기를 꿈꾸이기를 위한 의자, 양증맞은 탁자, 그 옆으로 스미듯 마음을 깨우는 그림책이 전시됐다.

북포레는 아트북, 그림책, 책 관련 포스터와 상품을 전시·판매하며 시각적으로 다양한 즐거움을 준다. 동네라는 입지를 고려해 주민들이 원하는 책, 스티디셀러, 다양한 분야의 책들도 조금씩 늘리고 있다. 현재는 그림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예술성이 강한 작가와 1인출판사들의 책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김효린 대표는 질감, 촉감, 색깔, 글, 때로는 냄새까지 합쳐져 표현되는 그림책을 종이 예술의 결정체라고 한다. 짧은 페이지 안에서 시각적 효과와 글이 만들어내는 조화는 많은 상상과 저절로 미소 짓는 위안을 준다. 독자들은 글과 그림에서 자신이 가진 경험과 즐거움을 발견하고 큰 공감과 위로를 얻기도 한다.

김 대표는 아기 때부터 십 대까지 감수성이 가장 풍부한 시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각적 자극과 책을 읽을 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바쁜 우리 학생들에게 그림책이 편안하고 쉽게 다가올 것이라고 한다.

북포레는 지난해 어렵게 작가와 함께하는 드로잉 수

업, 영화감상, 그림책 읽고 나누기를 진행했다. 작가가 직접 코칭하는 드로잉 수업은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 만족했다. 영화감상은 아늑한 단독 극장 분위기에서 좋은 영화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방학 동안 진행한 그림책 읽고 나누기도 동네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다. 모두 반응이 좋았던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팬데믹으로 해외 유명 작가의 포스터와 아트상품을 보충하지 못했지만, 장윤정 화가의 그림, 김희연 작가와 제랄딘 알리부의 포스터가 북포레를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여유를 준다.

“어른 돼서 다시 올게요. 없었지만 안 돼요.” 몇 년 전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남긴 말이다. 김 대표의 바람도 같지만 여러 번의 고비와 1년을 넘긴 팬데믹까지

현실은 힘들다. 하지만 지원 정책에서 도움을 받고 이제는 동네 주민들도 북포레가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책방으로 버티길 바라는 이들과 고객들이 있어 힘을 낸다.

김 대표는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고 북포레만의 장점을 알려서 동네 사람들, 고객들과 같이 책과 그림이 주는 기쁨과 여유를 오래 함께할 수 있길 바랄 뿐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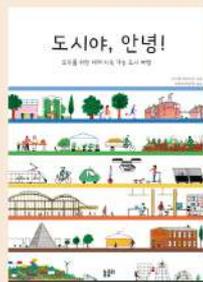
INFORMATION

북포레(BOOKFORÉT) 031-709-5523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40번길 4, 1층 113호(서현동 사범단지 카스스포름), blog.naver.com/bookforet
www.instagram.com/bookforet, www.facebook.com/bookforet

북포레가 추천하는 책

『도시야, 안녕!』

디디에 코르니유 지음, 놀공리 펴냄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2050년이 되면 다섯 명 중 네 명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인구가 밀집되면서 발생하는 환경과 과, 자원고갈, 빈곤 등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

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서울이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것도 사람들의 욕심이 부른 과도한 개발 때문이죠.

『도시야, 안녕!』는 자속 가능한 도시, 즉 친환경적인 도시에 대한 사례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꾸몄습니다. 건축, 디자인, 실질적인 환경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위한, 세계 많은 도시들의 새로운 시도와 놀라운 결과를 보여 줍니다.

앞으로 지구와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와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우리 모두 동참하고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성남시 스마트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성남시청/수정구청/중앙지하상가/성남시의료원/황새울국민체육센터 운영 중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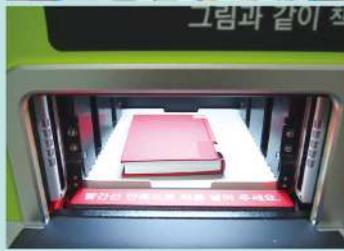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스마트도서관 조성 예산을 20억 원으로 확대해 전국 32개소에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한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은 한발 앞선 정책으로 2017년 탄천종합운동장, 2018년 성남시청과 수정구청, 2019년 중앙지하상가, 2020년 성남시의료원과 황새울국민체육센터에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 대출반납 자동화 기기다. 지하철역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돼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에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스마트도서관은 일반도서와 아동도서를 분야별로 신간, 인기도서, 추천도서 위주로 선정한, 330~530권을 비치했다. 설치 장소의 특성에 따라 중앙지하상가·성남시청 스마트도서관에는 성인 도서가 많으며, 탄천스마트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요청으로 아동도서를 절반으로 늘렸다. 도서는 1~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지난해 공공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했지만 스마트도서관은 비대면 이용으로 중단없이 운영됐다. 현재 중앙지하상가와 성남시청 스마트도서관은 대출 권수와 신규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탄천종합운동장도 실내체육시설은 이용이 중지됐지만 체육회관 1층 탄천스마트도서관은 인근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한다.

스마트도서관은 집과 일터 근처에서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출퇴근 시에 중앙지하상가 스마트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게 돼서 좋다는 후기를 남겼다. 탄천스마트도서관에서 만난 신승은(이매동 거주) 씨는 “찾아오기가 쉽고 신간 도서가 빨리 들어와 자주 이용한다. 코로나19 이전에 아이가 체육 수업할 때는 기다리면서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성남시 스마트도서관 소장도서는 성남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자료검색' 코너 '스마트도서관'에서 도서 정보와 대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므로 이용료는 무료다. 이용방법은 기기마다 안내문을 비치했고, 수정·중원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상호대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출도서는 꼭 대출한 스마트도서관에만 반납해야 한다. 도서관이나 다른 스마트도서관 기기에는 반납할 수 없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해 변경해야 반납 연체를 막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정식 개장한 황새울국민체육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장 중이지만 2층의 스마트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 입구의 인터폰을 통해 입장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도서관 이용 시 궁금한 점은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스마트도서관 이용 안내

	수정구청 스마트도서관	성남시의료원 스마트도서관	성남시청 스마트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스마트도서관	중앙지하상가 스마트도서관	황새울 스마트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도서검색						
위치	수정구청 종합민원실	성남시의료원 로비(지하1층)	성남시청 1층 로비 농협 출입문 좌측 벽면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1층 로비	중앙지하상가 지하철 8호선 신흥역 출입구	황새울국민체육센터 2층 로비
이용 대상	성남시공공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모바일회원증 가능)					
이용 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9시	365일 24시간(연중무휴)	오전 7시-오후 10시 (시청사 개방시간 내)	365일 24시간(연중무휴)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일·공휴일: 황새울국민체육센터 휴장으로 대출불가	
대출 권수 및 기간	1인 6권 14일간 대출 (수정도서관 1인 대출권수 6권 내 포함)		1인 6권 14일간 대출 (중앙도서관 1인 대출권수 6권 내 포함)		1인 6권 14일간 대출 (중원도서관 1인 대출권수 6권 내 포함)	
도서 반납	* 대출 예약 및 연장 불가 * 상호대차 서비스 불가					
도서 검색	* 대출한 스마트도서관에서만 반납 가능함 * 반납 연체 시 연체일 수 만큼 대출 정지					
이용 문의	수정도서관 031-743-9600(ARS 7213)	중앙도서관 031-729-4636	중원도서관 031-752-3913 (ARS 8219)			



광주군·광주대단지·성남출장소·성남시

하대원동 토박이 박봉원 씨의 기억 속 성남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01 성남서고 제1회 졸업식날 중앙극장에서 졸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 02 봉국사로 소풍 간 날 03 집 마당에서 혼례를 지르던 모습의 기억에 있다. 사진 맨 오른쪽 중학생 박봉원 04 하대원동 토박이 박봉원 씨

1960년대의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은 '광주군 돌마면 하대원리'라는 주소를 갖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농촌 마을에서 인심 좋은 박씨 일가들이 모여 살던 하대원에서 나고 자란 박봉원(66) 씨. 할아버지는 정미소를, 아버지는 과수원을 운영했으니 시골 마을이었지만 제법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가 성장하며 지켜본 성남은 어땠을까. '광주군'이란 지명에서 태어나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와 '경기도 성남출장소'를 거치고 '성남시' 승격에 이르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박봉원 씨가 국민(중동)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지역엔 '성남국민학교'와 '돌마국민학교' 딱 두 곳밖에 없었다. 여덟 살 때 돌마국민학교까지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등교했던 기억이 새롭다. 풍생중학교를 졸업할 즈음 원도심에는 없던 고등학교가 생겼다. 성남서고등학교다. 광주대단지 조성 후 철거민들의 유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인구수 대비 학교가 부족한 상황으로 기억된다.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대부분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농사일을 돕거나 막노동 또는 제1공단,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산의 나무가 베어지고 불도저가 지나가는가 싶더니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균용전막이 쳐지고 피난을 떠난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어린 나이에 그런 모습을 보며, 아프리카 난민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용했던 농촌 마을이었던 하대원에 소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정미소에 곡식을 동냥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할아버지께 선 쌀 한 되박이라도 돌려 보내셨다. 아침에 확인된 농촌의 풍경에는 밤새 배고픈 이들이 다녀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깻잎, 호박, 참외 등 농작물에 손을 대는 일이 연속으로 발

생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과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 개의치 않았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냥 조금씩 나눠 먹는다 생각합시다"라며 그들의 형편을 헤아렸다고 한다.

"두 줌쯤 되는, 200원짜리 국수를 사서 세 식구가 일주일 살고, 밀가루죽을 끓여서 온 식구가 연명한다고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일하러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는 사람들은 버스 창문으로 올라타서 위험하게 이동하곤 했죠." 무척이나 소란스러운 시대로 기억된다. 철거민들의 한숨 섞인 울음소리와 부동산 투기꾼들의 사나움이 뒤섞였다.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며 다시 떠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다 보니 분양권을 투기꾼에게 팔고 또다시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난무했다. 그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균용전막은 하나둘 사라졌다. 그 자리엔 블록에 슬레이트를 얹은 집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원주민들의 생활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다. 초가집을 헐고 블록 위에 슬레이트 지붕을 올렸다.

박봉원 씨는 성남에서 나고 자랐다. 고조부 때부터 약 200년 동안 대를 이으며 살아온 터를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토박이다. '광주군 돌마면 하대원리 111번지'라는 주소가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다.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고, 그 너머의 기억엔 미군들이 하대원 들과 밭에 와서 포사격 연습을 하던 모습이 남아 있다. 광주군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승격되면서 '광주군 돌마면 하대원리'라는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으로 기록된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광주대단지 시절로 인해 성남에서 산다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내 고향 성남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남엔 남한산성이 있다. 사통팔달 확충된 교통망과 살기 좋은 경제와 문화가 있다.



04



생활법률 Q&A

중도금 지급의 효과와 지급시기 도래 전 중도금 납부의 의미

Q. 매수인 A씨는 한 달 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일자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그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가 위 계약을 일반적으로 파기할까 걱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A씨는 중도금 지급시기 전,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A.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에 의하면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계약 이행이 착수된 경우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가능합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상담터) 031-729-2493





나눔으로 은혜 깊은 강정환·소영 남매 “좋은 일 하면 모든 것이 더 좋아져요”

취재 정경숙 기자 chung0901@naver.com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남매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중원구 중앙동 소재 배달대행업체 '모두의 쿨' 강정환(35) 대표와 누나 강소영(37) 씨 남매다.

강소영 씨는 “평소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어려울 때 받은 도움에 대한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 너희는 커서 돈 벌면 주위를 둘러보고 어려운 이들을 챙기며 살아라고 하셨지요. 아직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그 뜻을 받들어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했다.

이들 어머니가 받은 도움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삼 남매를 키우며 받은 정부의 지원과 이웃의

나눔이었다. 지역에서 배달대행업을 하는 남매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겨울 내의 100벌을 수정구청에 기탁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명절 때면 백미와 라면, 생필품 선물세트 등을 지원해 왔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 가정엔 냉장고, 선풍기 등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흔쾌히 물품을 후원하며 묵묵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지난 30일 이들의 훈훈한 감동이 있는 나눔 활동을 칭찬하는 성남시장 표창 수여가 있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은 표창 수여식장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다는 기억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남매를 보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 헛되지 않았구나, 보람을 느낀다. 모범사례로 기록해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환 대표는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고, 시민들의 사랑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니 그 일부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면서 “나눔 활동에 마음을 보태 준 직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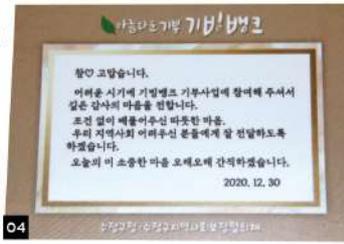
‘모두의 쿨’은 배달대행업을 시작한 지 5년차로 활동하는 직원만도 60~70여 명이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늘어난 수익으로 올해 더 많은 나눔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남매에게 나눔은 어떤 의미일까? 강정환 대표는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니 나눔은 보람인 것 같다”며 “도움을 주면 되레 위로를 받고, 고맙다는 인사에는 늘 행복하다”고 말했다.

“돌아보면 유독 어려운 사람이 많이 보인다. 그들에게 작지만 보탬이 되고 싶어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강정환·강소영 남매. “좋은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진다”며 활짝 웃는 이들 남매의 나눔을, 좋은 일을 응원한다.

- 01 '모두의 쿨' 강정환 대표와 누나 강소영 씨
- 02 수정구청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 내의 100벌을 기탁했다.
- 03 성남시장 표창을 받는 강정환 대표
- 04 아름다운 기부 기방뱅크



생태 이야기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숨은 일꾼, 대나무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바람이 부는 날, 대나무 엽을 지나면 대나무 잎사귀들이 부딪혀 나는 소리가 제법 웅치 있다.

대나무는 한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벼과의 식물중 왕대속, 해장죽속, 조릿대속에 포함되는 목본성 여러해살이식물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이름이 대나무이기 에 당연히 나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나무는 식물학적으로 풀로 취급된다.

대나무가 단단한 목질부를 가지고 수십 년을 살지만 보통의 나무가 매년 꽃을 피우는 모습과는 다르게 대나무는 평생 한 번 한기번에 꽃을 피웠다가 풀처럼 말라 죽어버린다. 게다가 부피생장을 담당하는 부름켜가 없어서 나이가 없고 풀처럼 즐기는 매년 처음 땅속에서 자라 올라오는 굵기로 평생 살아간다.

지구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 중 하나인 대나무는 고대 사회의 전쟁 무기부터 책, 의복, 식기, 가구, 약기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수많은 물건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다. 또한 대나무는 전구가 발명되는 데도 활용됐다. 에디슨이 전구를 연구하던 초기, 대나무를 탄화시킨 필라멘트가 값이 비싸 효율성이 떨어지는 백금 필라멘트를 대신할 최고의 소재로 선택됐던 것이다.

대나무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군자가 따라야 할 모범이기도 했다. 군자란 대나무처럼 항상 곧고 단단해 부정과 물에 타협하지 않아야 하며, 속이 빈 대나무 즐기처럼 늘 마음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 로고에 있는 다섯 개의 직선은 곧게 뻗은 대나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유교에서 대나무는 아버지를 상징해 아버지가 돌아가시

면 자식들은 대나무지팡이를 들고 상례를 치렀다.

영어로 대나무는 'bamboo'인데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에 비롯됐다고 한다. 당시 인도에서는 알미운 영국인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대나무를 쌓아 놓고 불을 질렀다. 이때 뱅뱅하고 터지는 소리를 'bamboo' 들은 영국인은 대나무를 일컫는 'bamboo'라는 영어 이름을 만들었다고 한다.

산림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나무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흡수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대나무숲 1헥타르당 연간 약 30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소나무나 잣나무의 탄산가스 흡수량보다 4배나 많은 양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서식처가 북상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성남의 곳곳에서 왕대속에 포함되는 큰 대나무뿐만 아니라 나무 밑에서 자라는 조릿대속에 속하는 자그마한 대나무까지 다양한 대나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표피가 검은 색이라 '까마귀오(烏)자'를 써서 오죽(烏竹)이라 불리는 대나무도 분당 양지마을 청구아파트 화단과 한솔마을 아파트 화단에서 볼 수 있다.

대나무를 무심하게 지나치기 쉬운데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고마운 마음에 대나무에게 한 번 더 눈길을 주게 될 것 같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공청하는 의회 정책 중심 의회 일하는 의회 공정한 의회 청렴한 의회

성남시의회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辛丑年 謹賀新年

제심합력(齊心合力)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기고 다시금 건강하고 활기찬 성남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서로 응원합시다. 힘내십시오.
성남시의회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남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새해 첫 일정 시작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월 4일 오전 수정구 태평동 소재 현충탑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현충탑 참배행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인 원만 참석했다. 시의원들은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창근 의장은 "성남시의회는 올해를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새해 첫 의장단 회의 개최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월 18일 의장실에서 2021년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새해 첫 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의장단 회의는 윤창근 의장과 조정식 부의장을 비롯해 마선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영애 의회운영위원장,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 최한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순 윤리특별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성남시의회 개원 제30주년을 기념해 지난 의정사를 돌아보고 2021년도의 전반적인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계획을 살폈다. 또한 제26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의원발의 조례안 접수 현황을 검토했다. 이번만 아니라 2020년 지방의회의 종합정령도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는 더 높은 등급을 받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 예정된 성남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기후 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첫 활동 시작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기후 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지난 11월 24일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12월 23일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활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유종진, 강현숙, 이준배, 최미경 의원과 국민의힘 박영애, 안광환, 이기인, 박은미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에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금곡-구미1동)을, 부위원장에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을 선임했다. 1월 1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는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식) 주관으로 "성남시 기후변화와 위기대응을 위한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지구 기온 상승 억제 목표 지키기에 부합하는 성남시 기후-에너지, 공원-녹지, 교통, 폐기물, 건물, 생활환경, 고용안전, 도시농업, 사회적 약자배려 등 사회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공청하는 의회 정책 중심 의회 일하는 의회 공정한 의회 청렴한 의회

성남시의회, 코로나 시대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다 『CHANGE 9(포노 사피엔스 코드)』 저자 최재봉 교수 특강 열어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월 19일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최재봉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쇼크,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코로나로 인해 바뀐 일상과 현 시대의 중심이 된 '포노 사피엔스(Phone + Homo Sapiens: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는 새로운 인류)'의

생활방식을 통해 바뀌어 할 코드 9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디지털그린소셜 등 성남형 뉴딜을 논의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과도 연관돼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자 추진됐다.

성남시의회, 노숙인 시설 현장방문해 컵라면 30박스 기증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4일 노숙인 시설들을 방문, 노숙인을 위한 컵라면 30박스를 각 시설에 기증하면서 행복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확산과 한파로 더욱 열악해진 노숙인들의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안나의 집, 중앙동 노숙인 쉼터 등 3곳을 순차적으로 둘러봤다.

성남시의회, 연말연시 맞아 성남이로운재단에 성금 300만 원 기부



달은 윤창근 의장과 마선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추진했다. 성남이로운재단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지역 재단이며 성남시 유일의 공익 모금기관이다. 성금은 성남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등 지역 복지기관 3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의장실에서 성남이로운 재단 관계자에게 성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 전

제260회(임시회)	1. 25(월) ~ 2. 4(목)	○ 본회의: 2일(개회·폐회) * 교섭단체 대표연설 ○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1일 ○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6일	○ 토요일휴무(1. 30) ○ 일요일(1. 31)
------------	--------------------	---	--------------------------------

사진으로 보는 의회 소식



성남시의회, 재설작업 동참(1월 8일)



성남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책 개발 간담회 개최(1월 11일)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을 아시나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번호인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공직 선거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조치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최고 "5억원" 까지 지급!

자수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선거콜센터 1390

선거정보 모바일앱

신고방법2



건강칼럼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해서 꼭 수면제를 복용해야 하나요?



김연진 과장
성남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Q1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해서 꼭 수면제를 복용해야 하나요?

수면 장애의 일차적 치료는 올바른 수면 위생 교육과 수면 습관 교정이지만, 이로 인해 불면이 해결되지 않을 때 수면제는 불면증 치료에 가장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서적 문제나 사고 장애 등 다른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불면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단독으로 처방받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동반돼 있지 않은지, 즉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수면제만 복용하다가 문제를 장기적으로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면제 처방에 대한 부담, 거부감 등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불면증의 만성화뿐 아니라 불면이 주는 고통으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우울, 불안, 만성적 스트레스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Q2 수면제는 무엇인가요? 수면 유도제와는 다른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항불안작용을 나타내 졸음 효과가 있고,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수면 유도제'와는 그 성분과 효과, 복용 대상 등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리는 수면제는 항불안제인 벤조다이아제핀류 약물입니다. 긴장완화, 불안감소, 수면 유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 중추신경계의 특정 부위에 작용해 효과를 나타냅니다. 최근에는 진정 및 항불안 효과는 비교적 적으면서 수면 유도 효과가 같은 졸피뎀, 에스조피클론과 같은 비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위 약물들은 벤조다이아제핀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면서 내성이나 진정 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비교적 보편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되는 수면제입니다. 다만 알코올이나 기타 다른 진정제, 진통제 등을 같이 사용할 경우 수면 운전, 음식을 먹거나 전화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의 복합 수면 행동, 환각 현상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꼭 처방 의사와게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정신성 수면제와 달리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성분 약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 중 일부 수면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Q3 수면제를 복용하면 의존이나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수면제를 유지하는 기간은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이내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불면증의 유발 요인이 제거되고,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담당 의사와의 상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용량을 조절하고 중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항불안제를 포함한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했다가 중단할 경우 불면, 초조, 좌불안석, 설망 등의 금단 증상이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감량이나 중단의 시도 없이, 고 용량을 복용하면서 다른 약물이나 물질 사용이 동반돼 온 경우입니다.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불면증 원인을 찾아내고 적합한 약물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용량 및 복용 시기를 조절한다면 대개의 불면증은 수면제 복용의 장기화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Q4 수면제를 복용하면 치매가 빨리 발생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수면제 복용과 치매 발생의 관련성에 대한 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다른 동반된 문제들이 치매 발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으며 다른 만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면제 복용 자체가 노인의 치매 발생 원인이 된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수면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약물은 복용 후 반감기, 즉 체내에 남아 배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기실 불면증의 장기화로 인한 다른 정신적 문제들의 발생이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Q5 올바른 수면 습관에 대해 알려 주세요.



-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간밤에 잠을 못 잤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전 10시경 30분씩 햇빛을 쬐면 그날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 햇빛이 비치는 낮에 운동하고 낮잠은 자더라도 30분 이내로 합니다.
- 자기 전 2시간 이내 따뜻한 목욕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 잠자리에서는 독서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등 수면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취침 후 20분 내 잠들지 않거나 깨서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합니다.

건강교실

평생 건강을 위한 첫걸음,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 모집기간: 연중(수시접수)
* 접수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신청기준
아래 조건(①, ②, ③, ④)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거주기준: 성남시 거주하는 자
② 소득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③ 대상기준: 임신부 및 64개월 미만 영유아
④ 영양위험: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실조 등 영양위험 보유자
* 단 임신부는 거주·소득 대상 기준 충족 시 대상자로 선정
- 사업내용
① 대상유형(임신부·영아·유아·출산수유부)별 6가지 패키지 식품공급: 매월 2회 공급
② 영양교육(상담): 식생활 관리, 이유식, 빈혈, 편식, 저체중, 아토피 등
③ 주기적 영양평가: 1회/6개월
- 신청방법: 전화접수(거주지 보건소)

수정구보건소 031-729-3881, 중원구보건소 031-729-3920, 분당구보건소 031-729-4006

하나된 성남, 치매이 시장입니다

월처여 및 보행보조기 무료대여

운영기간
2021년 1월부터

대여기간
2주
* 대기하지 않음시 1회 연장 가능

대여대상
고등동 관내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여장비
월처여, 보행 보조기구

신청서류
대여신청서, 신분증

신청장소
고등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1-729-5893)

타 지역 주민은 보건소를 이용하여 주세요
수정구보건소 031-729-3849



장서각 산책

극비의 암행어사 봉서(封書) 복사본이 4건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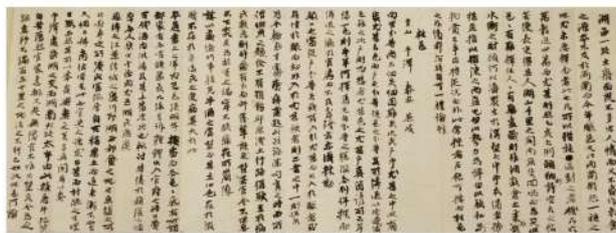
백영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도서관이자 박물관이며 전국 각지 고문헌을 수집 정리하고 전시하는 장서각(藏書閣)이 있다. 그간 2건의 국보와 10건의 보물을 비롯해 10만여 점의 고전적 서골 옛집의 다락방에서 발굴해 120권이 넘는 《고문서집성》을 출간해 세상에 내놓고 있다.

2020년 초 한 집안에서 수집해 온 고전적 더미를 장서각 1층 고전적 정리실에서 분류 정리하던 중이었다. 수집된 고전적은 우선 고문서, 고서, 유물로 대분류한 다음 고문서는 교령류(敎令類)·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접관통보류(牒關通報類)·증빙류(證憑類)·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시문류(詩文類)·외교문서(外交文書) 기타(其他)로, 고서는 경(經)·사(史)·자(子)·집(集)으로 중 분류하고 있다. 낱장의 고문서라 할지라도 시간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한눈에 보고 어떤 문서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앞뒤로 2줄 정도씩은 봐야 대강이나마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한 문서를 집어 들었는데 봉투까지 갖추어진, 반듯하게 쓰인 비교적 큰 문서였다. 대다수 고문서가 그렇듯이 제목이나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낸 것인지 앞뒤에 아무 단서도 없이 '호서일로(湖西一路)'로 시작해 '타읍하론(他邑何論)'으로 끝나는 문서인데, 그레도 중간에 '姓邑[씨로 뽀힌 고을]'이라고 별도로 적혀 있어 뭔가 국왕이 고을을 조사하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싶었다.

다시 수십 장의 문서를 1차 분류했는데, 또 '湖西一路'로 시작되는 조금 작은 문서가 나왔고, 얼마 뒤 다른 수집 상자에서 손바닥만 하게 책처럼 묶인 '湖西一路……'라는 문서가 나왔다. 같은 내용의 문서가 한 집안에서 여러 건 나온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거니와 마음을 가다듬고 찬찬히 살펴보기로 했다.



1799년 봉서_家藏本(36영)

그 문서는 1799년(정조 23)에 정조가 부수찬 신현(申鉉)을 충청도 암행어사로 내려보내면서 흥년이 든 아산, 평택 등 고을의 세금 감면과 구휼 배정, 반상(番上) 비용, 소의 도살 금지 및 그에 따른 아전의 농간 문제 등 백성들이 고통받는 원인들이 잘 조사해 오라고 지시한, 일종의 명령문을 넣은 봉서(封書)였다. 봉서란 특히 수령의 비리를 비밀리 캐내기 위해 암행어사에게 은밀하게 내린 업무 지시서이자 임명장을 봉투에 넣고 밀봉해 준 문서다.

당장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길봉에 담겨 있는 단정한 정자로 쓰인 필체의 것이 원본이고, 조금 작은 또 다른 것은 그 집안에서 베껴 써서 소장하던 것이고, 손

바닥만 한 것은 암행어사의 임무 수행을 위해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다녔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한 집안에서 같은 내용의 문서 3건이 나오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 내용을 계속 분석하며 검색하던 중 또 다른 등서본(謄書本)이 바로 장서각 2층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문서는 국왕이 신하에게 내린 문서의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비서실격인 승정원에서 베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언가 전율이 오는 순간이었다.

222년 전 임금이 신하에게 내린 한 건의 극비 원본 문서가, 그 집안에서 보관하기 위해 베껴 놓은 1건, 암행어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매 속에 넣고 다닌 1건, 궁궐에서 부분(副本)으로 보존하기 위한(그래서 장서각으로 전해졌던) 1건, 도합 4건의 문서가 한

자리에서 확인된 보기 드문 경우다. 한 점으로 시작된 극비 문서의 복사본이 4건이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도 흠어져 있던 것들이 수백 년이 흐른 후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전국에 산재한 고문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관리하는 장서각 고문서 조사수집 정리 사업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던 순간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기록'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여러 사본의 기록이 존재하기에 정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잘못 기록된 사실의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책 속에 흐르는 선율

산도르 마라이 『열정』 & 쇼팽 <환상폴로네즈, 작품번호 61>

헝가리 작가 산도르 마라이의 『열정』(출판사, 2001)은 사십일 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친구의 하룻밤의 대화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인간이 운명처럼 만나 '우정'과 '사랑'이라는 다른 두 종류의 '열정'을 겪으며 맞닥뜨리게 되는 인간 존재의 문제들이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긴 대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 친구의 독백 같은 대사들은, '다르다'는 것이 내포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극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삶의 비밀스러운 법칙과 함께, 우정과 사랑, 이상과 절망, 행위와 의도, 사실과 진실, 삶과 죽음 등 인간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이원론적 문제들을 다룬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 못하고 그림으로써 결국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는 친구가 연주하는 음악을 통해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선

율의 언어, 특정한 사람들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언어를 나는 증오하네."

소설 속 '이 이해할 수 없는 선율의 언어는 쇼팽의 <환상폴로네즈, 작품번호 61>로, 20세에 조국 폴란드를 떠나 파리 정착 후 다시는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쇼팽이 폴란드를 그리워하며 만든 작품이다.

'폴로네즈(3/4박자의 폴란드 민속춤) 리듬'이 곡 전체에 흐르며 폴란드 색채를 강하게 풍기는 이 작품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와 함께 소설 속 상반되는 두 친구를 나타내는 음악으로 사용된다.

"삶을 더 쾌적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음악"과 "마음속 깊이 파묻혀 딱딱하게 굳고 공명이 핀 것이 모두 일시에 살아나고, 삶의 특별한 순간에 운명적으로 강하게 울리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리듬"을 지닌 음악을 서로 이해할 수 없었던 두 친구.

모국어인 헝가리어로 글을 쓰는 것에 소명의식을 느꼈

던 작가가 '다름', '이원성'을 풀어내는데 인간의 또 다른 언어인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흥미로운 소설이다.

소설 속에 흐르는 음악 쇼팽 <환상폴로네즈>를 들으며 독자들도 "존재의 이원성"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이성 아닌 감성으로 한번 느껴보길 바란다.

* 유튜브에 '비잔성남 책속선율 열정'을 입력하면 관련 음악과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책 『열정』 보유 도서관은 중앙·충원·판교·분당 도서관이다.



취재 조윤수 기자
choyoonsoo@gmail.com



유튜브 연결



2021년 2월 프로그램



2021년 2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내용	참여방법
슬기로운 랜선생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전체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체험카드 배포 후, 집에서 함께하는 비대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가족순나들이 (겨울)	화, 목요일 10:30~11:30	5세 이상 가족	계절에 따른 다양한 주제의 놀이와 체험을 경험하는 순나들이 프로그램 - 우천시 우의(우산)준비	
환경야 놀자!	화요일 11:00~11:50	6세~7세 단체	동화와 체험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재미있고 쉽게 환경에 다가가고, 실천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단체프로그램	
기후랑 나랑	목요일 11:00~11:50	6세~7세 단체	기후변화 이야기를 간단한 체험놀이와 만들기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단체프로그램(유아 누리과정 연계)	
자연관찰학교	화요일 15:30~17:00	8세~11세	자연의 변화를 관찰, 기록하면서 생태를 체험하는 정기 모니터링프로그램(1회 신청 시 2개월 정기참여)	* 참여방법
에코키즈 팩토리	수요일 13:00~14:00 15:30~16:30	8세~11세	생활 속 다양한 유해물질과 환경오염의 주범들 알아보고, 천연재료를 만들어가며 실천방법 알아보는 환경안전 프로그램	- 홈페이지지원 가입 후 무료신청
에코키즈카페	금요일 15:30~17:00	5세~7세 어린이+보호자	어린이와 보호자가 짝을 이루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경험하면서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프로그램	- 매일 1일 (휴일인 경우 전주)부터 다음 달 예약 가능
겨울철새 이야기	토요일 10:00~11:30	8세~10세	'추운 겨울, 새들은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겨울철새와 새들의 겨울나기에 대해 체험을 통해 배우고, 환경 감수성 키우는 탐조 특강프로그램	- 신청 시, 페이지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꼭 확인바랍니다.
신나는 전래놀이	토요일(가족 일요일예외) 10:30~12:00	가족 5세 이상 가족 개인 8세~10세	우리 전통의 놀이방법과 직접 만들어보는 재미난 놀이도구들 모두가 만나고 건강해지는 전래놀이 프로그램	
놀이 배우는 기후학교	토요일 13:00~14:30	9세~12세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해 게임과 놀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프로그램	
하나 되는 기후가족	토요일 15:00~16:30	8세 이상 가족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만 극복 가능한 기후변화 문제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배우는 가족 프로그램	
리틀 프레스트	일요일 13:00~14:30	5세 이상 가족	온가족이 함께 자연을 즐기고, 그 속에서 놀이와 체험, 관찰 등을 통해 생태지식과 감수성을 기르는 가족 힐링 프로그램	
가치 찾는 에코교방	일요일 15:30~17:00	5세 이상 가족	다양한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창작품 리플을 통해 민족공간과 창의성을 키우고 나만의 소품도 만들어 가는 에코창작 가족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

판교환경생태학습원 <http://ppark.seongnam.go.kr>, 031-8016-0100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대상	내용	
에코키즈 A	화~금 오전/오후	유아단체 (5~7세)	2월: 새들의 겨울나기	
에코키즈 B		초등단체		
맹신산속이야기	토, 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환경부 우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월별 주제에 따라 진행>	
가족목공교실	토, 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기후변화시대 목재의 사용 이유를 알고 다양한 소품 만들어 보기 1분기: 새해 소망 담은 마스크걸이대	
절기따라 생태원가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초등가족	재미난 이야기를 각색한 환경생태 동극 및 오감 체험놀이 (1분기: 겨울왕국)	
새집모니터링단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가족	1월부터 6월까지 활동 -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 할 수 있는 조류에 대해 알아보고 인공새집 만들기부터 주류관찰, 지속적인 새집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	
숲속 이야기극장	수요일 오전	유아단체	재미난 이야기를 각색한 환경생태 동극 및 오감 체험놀이 (1분기: 겨울왕국)	
비대면 프로그램	셀프생태 탐사	상시	가족	QR코드를 활용하여 아이들과 부모님이 야외학습을 둘러보며 겨울이 다가온 생태 체험활동을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목공	가족	가족	워크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교구구미 배부 후 가정에서 실명제작 및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완성해보는 환경활동 프로그램
	곰팡이랑 환경이야기	가족	가족	워크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교구구미 배부 후 가정에서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마스크목공이름 등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환경이 담긴 전통문화	가족	가족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우리-우리 전통문화도 배우고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한지 만화첩/인속놀이/복조리 만들기)
자연을 담다	상시	가족	유튜브 동영상에서 미리 생명의 모습을 보고 생태원 숲을 방문하여 찾아보는 프로그램	
함께하는 자연	별도협의	장애인	장애인 단체를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에코틴	별도협의	청소년	환경동아리 및 초등학생을 위한 환경프로젝트	
전시관람	상시	전체	- 코로나19로 2가족 10명 이내로 입장을 제한함 - 개구리이야기, 새이야기, 곤충이야기 둘러보기	
자원봉사활동	별도협의	청소년/단체	도슨트, 환경 정화, 작문도서관, 모니터링 등	
맹신산환경생태학습원 유튜브(YouTube)	상시	전체	생태원이야기, 프로그램 등 생태원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을 [유튜브: 맹신산환경생태학습원] 검색하신 후 구독하고 다양한 영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모든 관람객은 건물 입장 시 발열체크하고 방문객 일일점검부 작성이나 QR인증(전자출입부)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입장을 제한합니다.

* 개인 및 가족 예약의 경우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접수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 준비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개설 및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맹신산환경생태학습원 <http://mpark.seongnam.go.kr>, 031-702-1192

성남시청소년재단 바야흐로 청소년 세상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수정 청소년수련관	자치기구 청소년 모집	2월 ~ 3월	수련관 및 홈페이지	초중고 청소년	- 수련관 자치기구 청소년 및 동아리연합 모집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기재단, 청소년공연단 등 분야별 자치기구 청소년 모집	유선문의	031-729-9231-5
충원 청소년수련관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썬캡스페이스	2월 ~ 6월	수련관	후기청소년, 청년	- 신청대상: 관내 후기청소년-초기청년 (만19~29세) - 지원내용: 창업공간지원(미디어실, 목공실, 공방), 창업지원금, 창업 컨설팅 및 전문교육	유선문의	031-729-9336
	청소년 상담실 이용안내	연중	수련관 상담실	청소년 아동 부모	- 개인상담, 집단상담, 기성상담, 심리검사 - 대인관계, 스마트폰 조절 능력향상, 진로고민 등 - 학부모 개인-집단상담, 부모교육 등	유선문의	031-729-9360
분당 서현 청소년수련관	2021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가자 모집	연중	수련관 및 외부활동지	만14세~24세 이하 청소년	자기주도성향프로그램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유선문의	031-729-9433
	청소년 상담실 「독서심리 집단상담」	2월 매주 화요일	수련관	관내 초등 청소년	- 친구 문제/학업에서 오는 청소년 스트레스를 책으로 배워 풀어주기며 긍정적인 생각과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유선문의	031-729-9457
분당 정자 청소년수련관	화상화리실 & 스마트워크 부스 공간개방	연중	수련관 1층	청소년 기업 시민 등	- 온라인 화상화리실, 독립부스, 메이커장비(3D 프린터 및 레이저커파기 등) 공간개방 - 신청방법: 메이크올(www.makeall.com)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예약 가능	메이크올 홈페이지 예약	031-729-9551
	온&온 학습지원사업	연중	수련관 및 외부활동지	초중 청소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학습지원(온라인학습, 영어, 독서, 인-직성 프로그램 등)	유선문의	031-729-9555
분당 판교 청소년수련관	자치기구 및 동아리 청소년 모집	각 자치기구별 상이 (모집 안내 참고)	수련관 내 외부 활동지	14세~34세 청소년 및 청년	- 2021년 자치기구 및 동아리 청소년/청년 신규모집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교류활동 - 활동에 따른 봉사활동시간 발급 - 우수 활동 단원 시상	수련관 홈페이지 행사 안내 참고	031-729-9631-7, 9651, 9655 청년 문의 031-729-9632, 9634
	청소년안전망 모집	연중	수련관-야외체험 활동장	초등학생	- 온&온 학습지원사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유선상담 및 홈페이지 참조 후 이메일 접수	031-729-9655 031-729-9642-4
분당 야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상담실 모집	2.1(월) - 상시	수련관	초등 5~6학년 청소년(40명)	- 과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 모집 - 과학형구형 프로젝트(SI-PBL) 활동 중점운영 - 학습지원(수학, 영어, 독서, 독서-논술 등), 동아리활동(진로, 체육, 문화예술 등)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031-729-9840
	청소년동아리모집	2.1(월) - 상시	수련관	관내 청소년 2인 이상 동아리	- 멘스-밴드 예술교육-버라이어티/사회참여 등 모든 분야의 동아리 모집 중 - 수련관 내 동아리실 이용, 동아리별 맞춤 교육 및 활동 지원(비대면 활동도 가능)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031-729-9833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 청소년 모집	2.1(월) - 상시	문화의집 및 외부활동지	초중고 후기 청소년	- 청소년운영위원회, 우수페스티벌, Y.P, 미술봉사단 등 - 활동 공간 제공, 분야별 전문교육 진행 및 봉사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지급	유선문의	031-729-9955
	2021 온&온 성년형 학습지원사업	연중	문화의집	초중 청소년	- 온&온 학습지원사업	유선문의	031-729-9951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신규동아리연합 모집	연중	문화의집 및 외부활동지	15세~24세이하 청소년(15명)	- 1층 스테디카페를 활용한 문화회화 프로그램 진행 - 활동 공간 제공, 봉사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지급	유선문의	031-729-9913
	청소년동아리 「하루리, 신규동아리」 모집	연중	문화의집 및 외부활동지	14세 ~ 24세 이하 3인 이상 청소년	- 노래, 댄스, 보컬, 밴드, 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모집 - 활동 공간 제공, 분야별 전문교육 진행, 우수동아리 선정 및 지원, 봉사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지급	유선문의	031-729-9917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	연중	전화상담	청소년, 학부모 및 지도자	-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대인관계, 진로, 학업 등의 문제에 대한 일반 전화상담 - 가출, 성, 학교폭력 등의 위기긴급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유선문의	031-756-1388
	꿈드림스쿨 기초학습반	연중	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대비를 위한 집단 수업 및 1:1 수업 진행 - 온라인 학습강의 어플리케이션 활용 비대면 수업 - 집단 수업 적용이 어렵거나 기초학습이 부족한 청소년 대상 1:1 수업 운영	유선문의	031-729-9173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일정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

성남시청소년재단 <http://www.snyouth.or.kr>



성남시 여성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 모집부문 소프라노/메조/알토
- 자격요건 만55세 이하 성남시 거주 여성, 음악에 관심 있는분, 비전공자 환영,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자
- 입단방법 오디션 후 입단
- 연습일시 주2회
- 연습장소 금광정소년 비전센터 3층(수정구)
* 코로나19로 인한 동영상 연습 병행
- 문의 010-4585-4158(단장)

자영업자 미소금융 대출

- 대출상환 개인사업자 운영 및 시설자금(2천만 원 한도, 이율 년 4.5% → 성실상환시년3.5%)
- 자격 신용평점이 하위 100본의 20에 해당하거나 또는 근로장려금수혜자, 차상위계층확인자, 기초생활수급권자
- 문의 031-697-8136,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1(수내동, 에이지빌딩) 2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LG미소금융재단

웅크린 청년들의 기지개 공간 - 파이 청년 학교

- 나 홀로 일상에 젖어 있는 청년들이 기지개를 펴고 적성과 관심에 맞는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브릿지 스쿨
- 2021년 교육과정 및 입학설명회 수상상담가능
희망일 3일 전까지 신청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가능
홈페이지 신청양식에 일시 지정 또는 유선신청
 - 문의 031-703-0104 www.pie-edu.com

가족상담실 이용안내

- 전화상담 월~금 13~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 031-755-9338)
- 사이버상담 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go.kr)접속 → 사업안내 → 가족상담사업 → '사이버상담' 게시판에 등록(상담 진행)
- 내용 부부관계 및 다양한 가족관계 갈등 상담, 이혼 전·후 상담
- 문의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031-755-9327(내선 1번))

2021년 2.3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분당구청	스마트한 온택트 생활 (스마트폰 활용)	성남시민	2. 22 ~ 3. 12	월~금 10:00~12:00	24	교육은 비대면(온라인) ~ 1차: 2021. 2. 3(수) 10시~ • 대상: 만5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농업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결혼이민자, 국자유공자, 다자녀(3자녀 이상 학내가 초등학생 이하) ~ 2차: 2021. 2. 4(목) 10시~ • 대상: 성남시민 누구나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분당구청 홈페이지 http://www.bundang-gu.go.kr), 1인 1강좌원칙 * 1차 신청자는 교재 수령 시 증명서류지참 필수 * 교육일정은 분당구청 홈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에서 확인 가능
	나도 유튜브		2. 22 ~ 3. 12	월~금 14:00~16:00	24	
	구글크롬인터넷		3. 15 ~ 4. 2	월~금 10:00~12:00	24	
수정구청	스마트한 온택트 생활 (스마트폰 활용)	성남시민	3. 15 ~ 4. 2	월~금 14:00~16:00	24	1. 15(금) ~ 1. 29(금) 09:00~18:00 인터넷 신청순 접수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031-729-5072 http://www.sujeong-gu.go.kr 2. 15(월) ~ 2. 26(금) 09:00~18:00 인터넷 신청순 접수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031-729-5072 http://www.sujeong-gu.go.kr
	윈도우10 & 인터넷		2. 1 ~ 2. 26	월~금 14:00~16:00	30	
	인터넷 활용		3. 2 ~ 3. 29	월~금 10:00~12:00	30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윈도우10 & 인터넷 & 한글	장애인 및 가족 성남시민	2. 1 ~ 12. 31	월-수-금 09:20~10:30	20	수시모집 010-5184-6884, 031-732-6884 * 과목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컴퓨터 기초멀티미디어		2. 1 ~ 12. 31	월-수-금 10:30~11:40	20	
	ITQ 한글		2. 1 ~ 12. 31	월-수-금 14:20~15:30	20	
	ITQ 엑셀		2. 1 ~ 12. 31	월-수-금 15:30~16:40	20	
	ITQ 파워포인트		2. 1 ~ 12. 31	화-목 10:00~11:40	20	
	포토샵(GTQ자격증반)		2. 1 ~ 12. 31	월-수-금 13:00~14:40	20	

* 수정·중환·분당구청, 중앙·수정·중원도서관의 무료교육 일정은 해당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729-5072, 중원구청 729-6071, 분당구청 729-7073, 중앙도서관 729-4633, 수정도서관 743-9600, 중원도서관 752-3913

공동육아나눔터 놀이공간 이용

- 이용시간 월~금 10시~17시(예약제 운영,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2시간마다 30분씩 소독(소독 중 이용 불가)
- 이용대상 성남시 거주 1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부모-자녀 동반입실)
- 장소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신중) 내부 공동육아나눔터
*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3층(BYC빌딩)
- 내용 부모와 자녀가 내방하여 장난감 및 도서 이용 (1가족만 입실 가능)
-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일생활균형지원팀 031-754-9327

성남시장학회 2021년도 제1기 대학 장학생 선발

- 선발예정인원 69명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계속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교과서, 학생활비 등 부대비용 제외)
- 신청서접수 2021. 2. 15(월) ~ 2. 19(금) 18:00
* 장학회 홈페이지(www.snjh.or.kr)를 통해서 신청
- 선발자발표 2021. 3. 15(월) 개인별 전화통화 및 홈페이지 공고
- 문의 031-729-4811, 2(접속시간 12시~13시) www.snjh.or.kr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장 6층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노무·양육상담(개인상담)

구분	노무상담실	자녀양육상담실
일정	전화 및 사이버상담만 가능	사이버상담만 가능
대상	성남시 거주 및 관내 재직자	성남시 거주 또는 관내 재직부모
내용	육아휴직, 부당해고, 퇴직, 임금체불 등 근로 상담	자녀문제상담, 양육고충, 발달장애사, 다중장애검사 등
신청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전화 접수, 12시~13시 점심시간제외)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일생활균형지원팀 031-754-9327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One-Stop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미취업여성
- 지원내용 직업상담/직업교육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경력단절예방
- 문의/신청 전화 또는 방문

정리수납2급 직업교육훈련

-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및 일반인
- 일정 2. 16 ~ 3. 4(화, 목) 총 6일 18시간
- 시간 19:00~22:00(1일 3시간)
- 내용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리수납의 기술 습득
- 비용 11,000~127,890원(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에 따라 상이)

국민취업 지원제도

- 대상
- 만18세~34세 청년층: 고졸이하 비전공 청년, 상급학교 비전공 고교 졸업년도 재학생, 상급학교 비전공 대학·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
- 중·장년층(만35~69세): 중위소득 60~100% 이하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031-718-6696 www.snw.or.kr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훌룩 놀이키트

- 대상 성남시 영유아 가정
- 내용 배송된 놀이키트를 이용해 놀이 활동 후 이용후기 작성(매주 영아용·유아용 2종류 진행)
- 신청기간 2. 16(화), 2. 23(화)
매주 한가정에 1개 놀이키트 배송, 중복신청 불가
- 신청방법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순 접수
- 당첨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MMS 발송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

- 대상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
- 신청방법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순 접수
- 신청지점 금광점, 분당구청점, 분당관교점, 수정점, 양지점, 태평점, 중원점
- 신청기간 2. 1(월) ~ 2. 13(토)
* 지점마다 추정인원이 상이하며, 선착순으로 신청

크린토이

- 대상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
- 신청시기 1. 26(화) ~ 마감 시
- 신청방법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순 접수
- 이용방법 홈페이지 사전신청 → 세척 장난감 사진 및 신청서 메일 발송 → 신청일에 장난감 무인접수 → 세척 후 수거일시 문자 알림 → 세척된 장난감 수거
- 세척가능 장난감 종류 고온소탕가능 가능한 장난감 또는 건조기가 들어가지 않는 플라스틱종류 장난감
- 운영지점 양자아이사랑놀이터 031-736-1640, 태평아이사랑놀이터 031-753-1640

삼평아이사랑놀이터, 영아맞춤놀이터로 리뉴얼

- 자유놀이실 영아나래 놀이실
- 랜선집들이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 031-8017-16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66번길 7, 삼평동주민센터 1층
*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운영 결정. 재운영 시 홈페이지 및 SNS 통해 안내 예정



이경석 선생의 묘지에서 바라본 산과 골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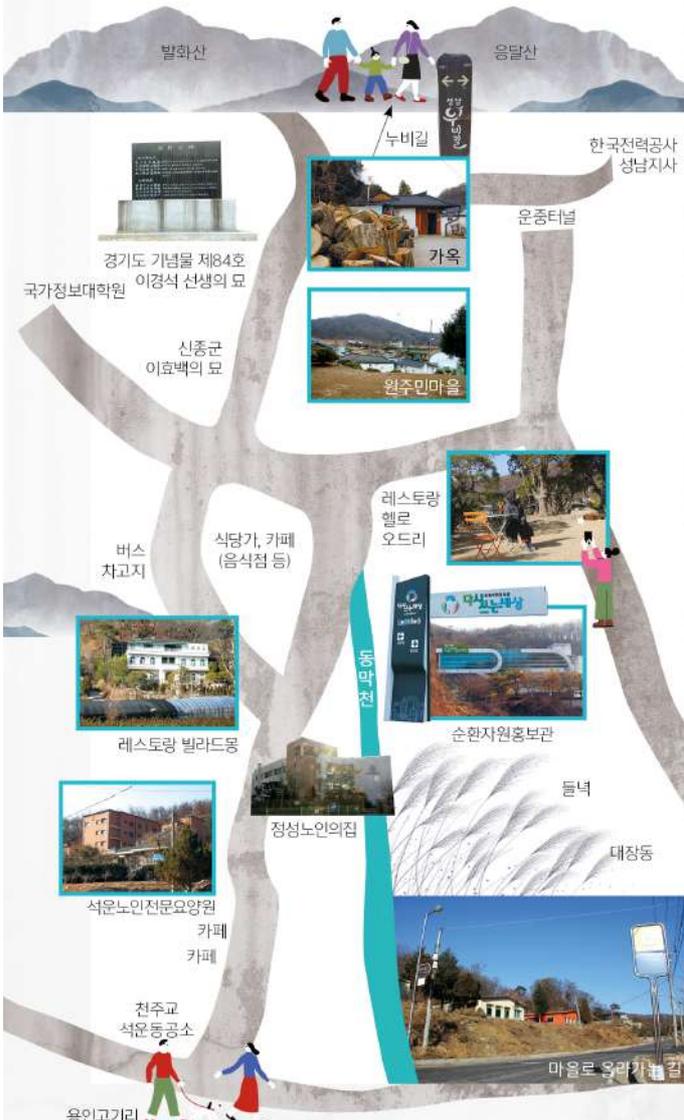


산의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 석운동

창창한 하늘 아래, 숲과 들이 내는 숨이 진하다

도시의 발길이 살짝 비켜 간 곳, 석운동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석운동은 아직은 대중교통보다 자가운전이 편한 동네다. 누리3번 버스가 시간 맞춰 오가고 있지만, 농촌기를 지내는 농촌 풍경인 듯 한적하다. 정성노인의집과 석운노인전문요양원을 양쪽에 두고 한국전력 성남지사 방향으로 길을 걸었다. 공기가 맑아서일까 찬 공기가 우울마저 날리는 기분이었다. 아파트가 들어서느라 건설 기계음이 요란한 아랫마을, 대장동에 비해 석운동은 한적한 모습으로 겨울을 즐기고 있는 풍경이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구름이 자주 끼고 돌이 많아 '석운[우리말은 돌운리도 루니]라고도 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는 동네.



묘지에서 노는 글짜지들

마을을 마주 보고 서니 오른쪽으로는 응달산, 왼쪽으로는 별화산이 능선을 맞대고 있다. 석운동은 골에서 발원한 동막천 줄기를 따라 형성된 마을이었다. 차로를 따라 걸다 보니 오른쪽으로 순환자원홍보관이 보인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설립한 홍보관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개관 여부를 알아보고 방문해야 한다. 2월 28일까지 야생동물의 모습을 담은 와일드라이프 사진전을 야외 광장에서 진행한다. 홍보관 뒤쪽은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이어져 있다. 조용한 풍경, 산뜻한 공기와 어울리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드문드문 자리를 잡고 있다. 도시라는 짐을 내려놓고 농촌 풍경에서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 속에 잠시 섞여보았다. 비로소 장창한 겨울 하늘이 보인다. 곧 봄이 올 거란 예감과 함께 사이 다처럼 푹 쏘는 화~ 함이 스쳐 간다. 그곳 분위기를 벗어나 왼쪽 길로 들어섰다. 경기도 기념물 제84호 이경석 선생의 묘와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8호 신중군 이효백의 묘를 알리는 이정표가 보였다. 이정표를 따라가던 중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이 보였다. 밤 짓는 부뚜막으로 통해

진 연기일까? 오래 돼 시간이 멈춘 듯한 그집에 걸려 문을 두드렸다. 뜻밖에 젊은 부인이 문을 열어 주었다. "도시에서 살다가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여기에 자리 잡았어요." 낮은 이에게 선뜻 들어오라며 맞아들였다.

두 분의 묘 주변에서 여러 마리의 물까치가 움직이며 내는 바스락 소리가 고요함을 흔든다. 이효백은 조선 2대 왕 정종의 손자로 궁술에 뛰어난 인물이다.

1467년 세조 때 이시애의 난에서 선봉장으로 나섰다. 이경석 선생은 인조·효종·현종까지 3대 동안 50년에 걸쳐 나라 안팎으로 얽힌 어려움을 적절하게 헤쳐나간 시대의 명상(名相)이었으며, 자신보다 관료의 책임을 먼저 생각한 인물이다. 병자호란 후 당시 누구도 쓰려고 하지 않던 삼전도 비문을 지었다. 전쟁 후 청나라의 압박이 심해 누군가는 써야 했던 비문을 쓰고 자신이 글을 배운 것을 헌탄했다고 전해진다. 묘역을 지나 좀 더 오르니 별화산과 응달산 사이에 두고 누비길 이정표가 보인다. 오른쪽으로 가면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가 있다. 한국전력공사로 가는 길은 맑게 세수한 얼굴 같은 정갈한 길로 내려져 있다. 누비길 이정표가 가리키는 거북이 등만 한 언덕에 오르니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 사이, 저 너머로 단아한 색을 가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보인다. 도시의 발길이 살짝 비켜간 석운동의 풍경 위에서 이 동네에 대해 한 뼘 정도 더 알아가며 기억에 담아 본다.

다시 쓰는 세상 순환자원홍보관 1688-9609



순환자원홍보관 야외 전시관

* 석운동은 법정동으로 행정동은 운중동이다.



함께 만드는 비전성남

essay

설과 세뱃돈

민경화 분당구 정자동

아이가 달려와서는 느닷없이 이번 설날에 세뱃돈 얼마나 줄 거냐고 물었다. 락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웬 뜬금없이 김칫국부터 마시냐고 묻자 아이는 평소 갖고 싶었던 드론을 사기 위해 미리 돈을 계산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할아버지가 얼마, 외할아버지가 얼마, 큰아버지가 얼마, 고모부가 얼마... 하면서 이미 제 나름대로 계산까지 뽑아놓고 장부 정리까지 하고 있었다. 속으로 '그 비싼걸? 놓고 있네' 하는 마음이 들었다. 몇 번의 설을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주어진 세뱃돈을 어찌 쓰는지 봐 왔던 터라 그걸 아이들 손에 그냥 호락 호락 놔둘 내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압수'해 아이들 예금통장에 넣어두고 일부만 빼내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주던가 책을 사줄 생각이야.

'설날'을 어린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세뱃돈이다.

지금은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 그러한 옛 추억과는 달리 가족 형제들을 만나는 기쁨과 어른들에게 뽀뽀한 세뱃돈 받는 기쁨이 여간 큰 게 아니었다. 아이들이 설날을 기다려 세뱃돈 받는 기쁨을 모르지는 않지만, 나는 가끔씩 세뱃돈 대신에 우리 아이들은 물론 조카들에게도 책을 선물로 주곤 한다. 아니면 아예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줬다가 그걸 줬다.

처음에 조카들은 책 선물을 그리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설 연휴 동안 책을 넘기면서 무료함을 달래기도 하고 진정으로 책 읽는 맛에 조금씩 재미있어했다.

좋은 책은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때론 한 권의 좋은 책이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문화상품권도 좀 줘서 음반이나 공연 볼 기회도 좀 주고, 무엇보다 마음이 담긴 이런 게 현금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

과일맛의 비결은 '인심과 인정'

김진순 수정구 신촌동

벌써 두세 달 된 일이다. 주말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귤을 사러 나가던 중 골목길 한쪽에 서 있는 자그마한 트럭이 보였다. 한눈에 봐도 10년은 탕을 밥한 낡은 차였다. 픽업트럭의 적재함을 난전으로 꾸민 과일 장수 아저씨가 트럭 옆에 낮은 의자를 놓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얼굴은 임꺽정처럼 크고 우락부락해 보였으나 말씀씨는 수더분한 이웃집 아저씨 같기에 나는 마트 가기를 포기하고 그 트럭에서 귤을 샀다. 그분의 끊이지 않는 웃음 덕분인지 그 후로는 줄곧 여기서 과일을 사게 됐다.

과일 맛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다. 귤은 늘 달았고, 딸기도 특유의 새콤달콤함을 자랑했다. 사과도 육질이 충분히 아삭거렸다. 아이들은 사과를 깎아 먹다가 "와아, 이거 사과밭에 실랑 뿌리나 봐. 진짜 대박!"이라며 환호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사과 맛 하나로 이렇게 흥분하고 호들갑 떨 정도면 그 맛이 어느 정도 일품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 과일장수 임꺽정 아저씨가 떠나 버렸다. 골목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마치 오랫동안 정 붙이고 살던 친한 이웃이 떠난 듯한 아쉬움이 남았고,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족에게는 커다란 뉴스가 됐다. 아마도 그 아저씨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다른 곳으로 터를 옮긴 것 같았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집 근처 마트에서 과일을 사게 됐지만 아이들 입에서는 당장 투정부터 나왔다. 과일이 하나같이 달지 않다는 거였다. 그제야 우리는 과일장수의 비범함의 정체를 알게 됐다. 우리를 매료시켰던 건 원래 가지고 있던 단맛 외에 임꺽정 아저씨의 인심과 인정이 곁들여져 우리는 거기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 약간은 최면 같은.

그동안 우리 가족은 과일 트럭 옆에서 열심히 책 읽으며 차분하게 하루를 즐기듯 여유롭게 잠사하는 임꺽정 아저씨의 인생의 맛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아저씨가 혹시 골목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나 확인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도 우리 동네 골목길의 추억을 못 잊어 다시 오겠지 하며 기다린다.

photo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 율동공원에서 눈을 치우느라 고생하시는 관계자들.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빅재득 분당구 이매동

백로의 춤



지난 1월 5일 오전 삼평동 운중천에서 만난 백로 일가족, 먹이를 찾으며 날고 있다.
이현화 분당구 이매2동



대기가스충전소

Daegi

시간을 신고 40여 년 전에서 달려온 택시와 기사님 “택시 탈 때 신발 벗고 타는 손님도 있었죠”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성호시장에서 희망대 파출소까지 가는 손님이었어요. 툼머리로 보는데 신발을 벗고 차를 타더라고요. 아, 성호시장에서 새 신발을 사고 헌 신발은 버리고 가는가 보다 했죠. 그런데 내리면서 신발이 없다는 거예요. 신발 버리고 탄 거 아니냐고 하니가 굉장히 민망해하더라고요.”

1978년 택시 운행을 시작해 43년 경력을 가진 이상구, 33년 경력 이상남 기사의 이야기와 함께 43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택시 기본요금 이 500원 정도였다. 지금은 사라진 합승이 공공연히 이뤄지던 때라 세 명 이상, 여러 명의 승객이 모여 있으면 택시는 손님을 피해 다니기도 했다. 합승 손님을 태우면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손님들도 피를 써서 한 사람이 택시를 잡는 척하고 있다가 택시를 잡았다 싶으면 일행이 나타나 탑승했다고 한다.

일명 '총알택시'가 유행할 때도 있었다. '구종점(현 단대오거리)에서 영등포, 을지로5가로 가는 손님들을 태웠어요. 손으로 목적지를 표시했죠.' 손가락 다섯 개를 모두 펴면 을지로5가, 엄지와 검지를 맞대 동그라미를 만들면 영등포를 가는 거였다. 손가락 모양에 맞는 손가락끼리 맞춰 네다섯 명까지 합승이 이뤄졌다. 당시 시민들의 출퇴근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80년 오일과동 당시 기름값은 리터당 700원 정도였다. 성남 택시는 모두 휘발유차였고, 주유소도 3~4곳밖에 없어서 줄을 서서 기름을 넣어야 했다. 1983~84년 LPG 가스차가 보급되면서 성남에도 가스 충전소가 들어섰다. 제일 먼저 생긴 곳이 성남문화원 입구에 있는 대기가스 충전소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대기가스 충전소는 택시

기사들의 쉼터 역할을 했다. 가스비는 리터당 178원 정도로 휘발유보다 많이 저렴했다. 택시의 차종도 변했다. K303, 로얄, 포니, 제미니, 프랑, 엑셀, 스텔라, 소나타, 그랜저 등 여러 차종으로 바뀌며 손님을 태웠다. 지금 개인택시 중에는 소나타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상남 기사는 “1984년에 개인택시를 시작했다. 처음 탄 차가 포니2로 33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당시 개인택시는 모두 노란색이었고 노란색 셔츠에 모자도 썼다”고 말한다. 지금과 다르게 택시의 색깔과 근무복이 정해져 있었다. 회사택시도 근무복이 있고 회사마다 색이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택시의 색이나 근무복 규정은 약 20년 전에 폐지되었지만 빨강과 검정 단색상의 제한, 슬리퍼를 신고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으로 삼고 있다.

택시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이 흐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택시를 타고 차창으로 과거에서 현재를 보며 지나는 듯했다. 분당신도시가 생겼을 때 입주민들이 택시 잡기 힘들었다는 당시의 하소연에는 '신도시다 보니 한번 들어갔다 나가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분당 가기를 꺼려했다고 말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종은 바뀌고 도로의 모습도 달라졌다. 길가에 서서 손을 들고 택시를 세우는 모습보다는 예약된 승객을 택시가 기다리는 시대로 변했다.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모습에서 신용카드, 스마트폰 앱,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대에 와있다.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과거의 그 어딘가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아타고 지금에 와있는 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든다. 20년, 30년 후 거리를 달리고 있을 택시와 승객, 차창 밖으로 지나갈 도시의 풍경이 궁금해진다.

01 성남 최초 생긴 가스 충전소, 대기가스 02 구종점(현 단대오거리 풍경) 03 대기가스 충전소에서 이상남, 김귀곤, 이상구 기사님



이 지면은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성남의 모습을 시민과 관계 추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30년 이상 오래된 마켓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직한가게, 장인 등이 있으면 비전성남 편집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29-2076-8

03